2026 춘천미래동행재단 정책연구

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일자리 참여자 620명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

최 종 보 고 서

2026. 11.

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TF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2
2. 조사설계 ····· 4
3. 조사진행 및 일정 ····· 5
4. 조사내용 ····· 5
5. 응답자 특성 ····· 6

Ⅱ. 조사결과 요약

1. 응답자 기본정보 및 개인 특성 ····· 7
2.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 8
3. 향후 발전방향 ····· 10
4. 노후준비 인식조사 ····· 10

Ⅲ. 조사결과분석

1. 응답자 기본정보 ····· 11
2. 응답자 개인 관련사항 ····· 19
3.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 31
4. 노인일자리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 44
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조사 ····· 52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종합결론 ····· 57
2. 정책적 제언 ····· 59
3. 제언요약 ····· 61

Ⅴ. 부 록

1. 주관식(기타) 응답정리 ····· 62
2. 설문문항구성 ····· 65
3. 참고자료 ····· 68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춘천시는 2023년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기 진입으로 고학력·전문경력을 갖춘 신노년세대(Young Old)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주류로 유입되고 있음

○ 춘천시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 52,955명(18.6%)에서 2026년 1월 64,682명(22.7%)으로 5년 사이 약 1만 2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도 2021년 5,482명에서 2025년 7,626명으로 2,144명이 늘어남

○ 춘천미래동행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일자리를 역점 추진하여 참여자가 2021년 124명에서 2026년 915명으로 7.3배 증가하였고, 사업예산도 7.4억원에서 79.9억원 규모로 확대됨

○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아 단순 소득보충형 공익활동과 차별화된 역량활용형 일자리의 성과를 참여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속가능한 춘천형 노인일자리 고도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됨

○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10만 명이 민간기업 평균 은퇴 연령(57세)을 지나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향후 10년간 시니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이 세대는 이전 노년층과 학력·경력·건강 수준이 뚜렷이 다른 '젊은 노인'으로 규정됨(백찬규, 2019)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약 4배로 일본보다 빠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진입함.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국가 재정 불균형과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4년 이후 남유럽식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함(백찬규, 2019)

○ UN은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개념과 함께 100세 시대에 맞는 5단계 연령 구분(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제안하여, 65세 이상을 일괄 '노인'으로 보는 기존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함(백찬규, 2019)

○ 독일은 2012년 정년을 67세로 연장한 데 이어 중앙은행이 69세 연장안을 제안했고, 프랑스(60→62세)·스페인(65→67세)·이탈리아(65→66세)도 정년을 상향했으며 영국은 2011년 정년을 폐지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의 이러한 선택은 AI·자동화가

노동력 수요를 전부 대체하지 못하며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함을 보여줌(백찬규, 2019)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시니어 세대는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라 노인의 권리를 스스로 뒤로 미루고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단순 소득보전형에서 역량활용형으로 성격 변화가 요구됨(백찬규, 2019)

2) 조사 목적

○ 베이비부머 중심의 신노년층이 생산 주체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유입되는 시점에서, 재단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참여자의 실태를 '젊은 노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춘천형 노인일자리 고도화 방향 도출

○ 재단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일자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력·역량, 경제·건강·가족 여건 등 실태 파악

○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인적 효과(건강·활력·경제), 사회적 효과(지역기여·인식개선), 재단 운영에 대한 신뢰·만족도 측정

○ 수요처 확보, 교육·문화활동, 참여 애로사항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참여자 수요 도출

○ 노후준비 인식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일자리사업과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모색

○ 조사 결과를 재단 사업계획 및 춘천시 노인일자리·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정책연구 및 제안, 기초조사)

○「노후준비 지원법」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2. 조사 설계

조사명	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 대상	춘천미래동행재단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표본 크기	620명(계획 600명 대비 103.3%), 참여자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2026년 6월 24일 ~ 2026년 7월 22일
조사 방법	노인일자리 정기교육(직무교육) 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집합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원 문항 설명 및 슈퍼바이저 검수 병행)
자료수집 도구	재단 자체 제작 구조화된 설문지(5개 영역 48문항)
자료 처리	데이터 코딩·입력 → 데이터 클리닝(논리오류 검증) →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조사 수행	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TF팀 (총괄 지형구 노후동행사업부장, 분석·평가 이영숙 사무국장, 데이터 관리·분석 임채정 매니저)

※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문항별 응답자 수(BASE)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기준이며, 비율은 유효응답 대비 백분율로 산출하였음(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Ⅳ-4(희망 일자리 유형), Ⅳ-6(희망 소양교육) 등 일부 문항은 복수 응답이 포함되어 응답 건수 합계가 응답자 수를 초과하며,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인식조사(Ⅲ영역)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점수와 긍정응답률(그렇다+매우 그렇다)을 함께 제시하였음

3. 조사 진행 및 일정

〈표 1-1〉 조사 추진 절차

단계	내용	담당	시기
STEP 1	조사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항 협의	TF팀	2026. 4.
STEP 2	설문 문항 작성 및 검토(중장기 연구용역 업체 자문), 예비조사(30표본)	TF팀	2026. 4.~5.
STEP 3	본조사 진행(정기교육 연계 집합조사)	TF팀·조사원	2026. 6. 24.~7. 22.
STEP 4	데이터 입력·검증 및 통계분석, 중간보고	전담매니저·TF팀	2026. 7.~8.
STEP 5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TF팀	2026. 9.~10.

4. 조사 내용

〈표 1-2〉 설문지 구성 및 조사 항목

영역	문항 수	조사 내용
Ⅰ. 응답자 기본정보	6	성별, 거주지역, 연령, 기초연금 수급여부,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 참여경로
Ⅱ. 응답자 개인 관련사항	10	건강상태, 주거형태, 가구원 수, 가족형태, 최종학력, 경제상황, 참여 전 주된 직종, 월평균 가계소득, 교통수단, 참여 이유
Ⅲ.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20	건강·활력·경제적 효과,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참여 의향, 자긍심, 관계 형성, 직무 일치도, 소속감, 재단 신뢰, 안전, 종합 만족도(5점 척도)
Ⅳ. 향후 발전방향	7	우선 노인복지정책, 재단 개선요소, 참여 불편사항, 희망 일자리 유형, 정기교육 개선점, 희망 소양교육 분야, 선호 문화활동
Ⅴ. 노후준비 인식조사	5	노후준비 필요성, 필요 요소, 준비 정도, 노년생활 영향, 적정 준비 시기

5. 응답자 특성

〈표 1-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문항별 유효응답 기준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20)	100.0	최종학력	무학	(1)	0.2
성별	남성	(236)	38.5		초등학교	(28)	4.6
	여성	(377)	61.5		중학교	(49)	8.0
연령	만 60~64세	(94)	15.4		고등학교	(208)	33.8
	만 65~69세	(220)	35.9		대학(4년제 미만)	(97)	15.8
	만 70~74세	(221)	36.1		대학교(4년제 이상)	(232)	37.7
	만 75~79세	(60)	9.8	가족형태	독거	(136)	22.0
	80세 이상	(17)	2.8		부부	(330)	53.3
거주지역	읍	(19)	3.1		미혼자녀 함께	(104)	16.8
	면	(93)	15.2		기타	(49)	7.9
	동	(499)	81.7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86)	13.9
기초연금	받고 있다	(277)	45.4		200만원 이하	(166)	26.9
	받고 있지 않다	(333)	54.6		300만원 이하	(143)	23.1
근무경력	1년 미만	(219)	35.8		400만원 이하	(103)	16.7
	1~2년	(195)	31.9		500만원 이하	(72)	11.7
	3~4년	(127)	20.8		600만원 이하	(31)	5.0
	4~5년	(42)	6.9		600만원 이상	(17)	2.8
	5년 이상	(29)	4.7	건강상태	매우 나쁨	(5)	0.8
					나쁨	(8)	1.3
					보통	(231)	37.3
					좋음	(276)	44.6
					매우 좋음	(99)	16.0

Ⅱ. 조사 결과 요약

■ 핵심 요약 (Key Findings)

○ **고학력·전문경력 신노년층이 주류**: 참여자의 87.3%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53.5%가 대학 이상 학력이며, 사무직·교육분야·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경력자가 60.3%로 역량활용형 직무에 적합한 인력 풀을 형성

○ **매우 높은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지**: 종합 만족도 4.50점(긍정 95.5%), 재단 재참여 희망 4.62점(긍정 97.9%), 재단 운영 신뢰 4.48점(긍정 96.3%)으로 20개 인식문항 모두 평균 4.0점 이상

○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효과와 직무 일치도**: 가계 경제 도움 4.10점(긍정 80.6%), 직무-역량 일치 4.10점(긍정 81.7%, 표준편차 최대)으로 급여 수준과 경력 기반 배치가 개선 과제

○ **개선 요구는 "수요처 다양화"에 집중**: 개선 필요 요소로 다양한 수요처 확보가 87.4%, 희망 일자리는 공공기관 행정지원(25.2%)과 아동·청소년(24.2%), 정기교육 개선점은 교육과정 다양성(72.9%)이 압도적

○ **노후준비 인식-실천 격차**: 노후준비 필요성 4.65점(긍정 95.9%) 대비 실제 준비 정도 3.02점으로 1.63점 격차, 필요 요소는 노후준비 교육(50.8%), 적정 시작 시기는 40~50대(58.6%)

1. 응답자 기본정보 및 개인 특성

○ 성별은 여성 61.5%, 남성 38.5%이며, 연령은 만 65~74세가 72.0%로 중심을 이루고 만 75세 이상은 12.6%에 그침. 거주지역은 동 81.7%, 읍·면 18.3%임

○ 기초연금 비수급자가 54.6%로 수급자(45.4%)보다 많고, 노인일자리 근무경력 2년 이하가 67.6%로 최근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참여자 비중이 높음. 참여경로는 지인 소개(51.8%)와 재단 홈페이지(25.3%)가 주도함

○ 주관적 건강상태는 긍정 60.6%, 주거는 자가 85.0%, 가족형태는 부부 53.3%·독거 22.0%로 부부 또는 1인 가구가 75.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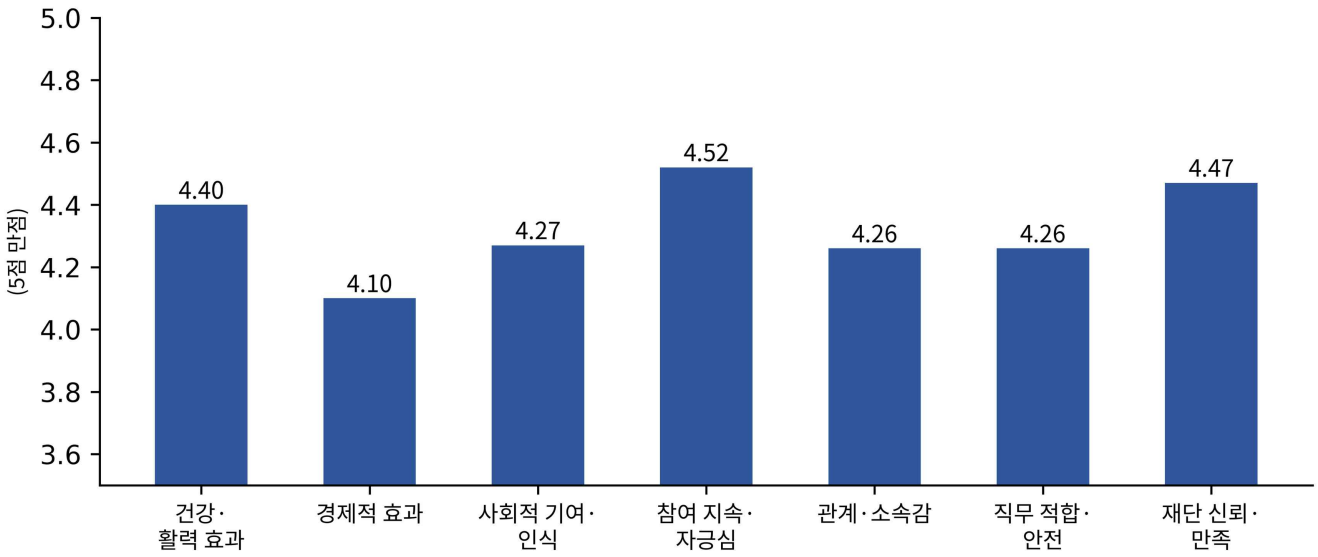
○ 최종학력은 대학 이상 53.5%(4년제 이상 37.7%), 참여 전 직종은 교육분야 27.8%·사무직 23.9%로 고학력·전문경력자가 주류이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하 40.8%, 300만원 초과 36.2%로 분포가 넓음

○ 참여 이유는 경제적 도움(54.3%)이 과반이나 사회참여(23.1%)·건강 유지(12.0%)·자아실현(11.1%) 등 비경제적 동기도 46.2%에 달함. 교통수단은 도보 39.0%, 자가용 36.6%, 버스 21.7%임

2.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 20개 문항 전체 평균 4.37점, 긍정응답률 9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영역별로는 참여 지속·자긍심(4.52점) 〉 재단 신뢰·만족(4.47점) 〉 건강·활력 효과(4.40점) 〉 사회적 기여·인식(4.27점) 〉 관계·소속감·직무적합·안전(4.26점) 〉 경제적 효과(4.10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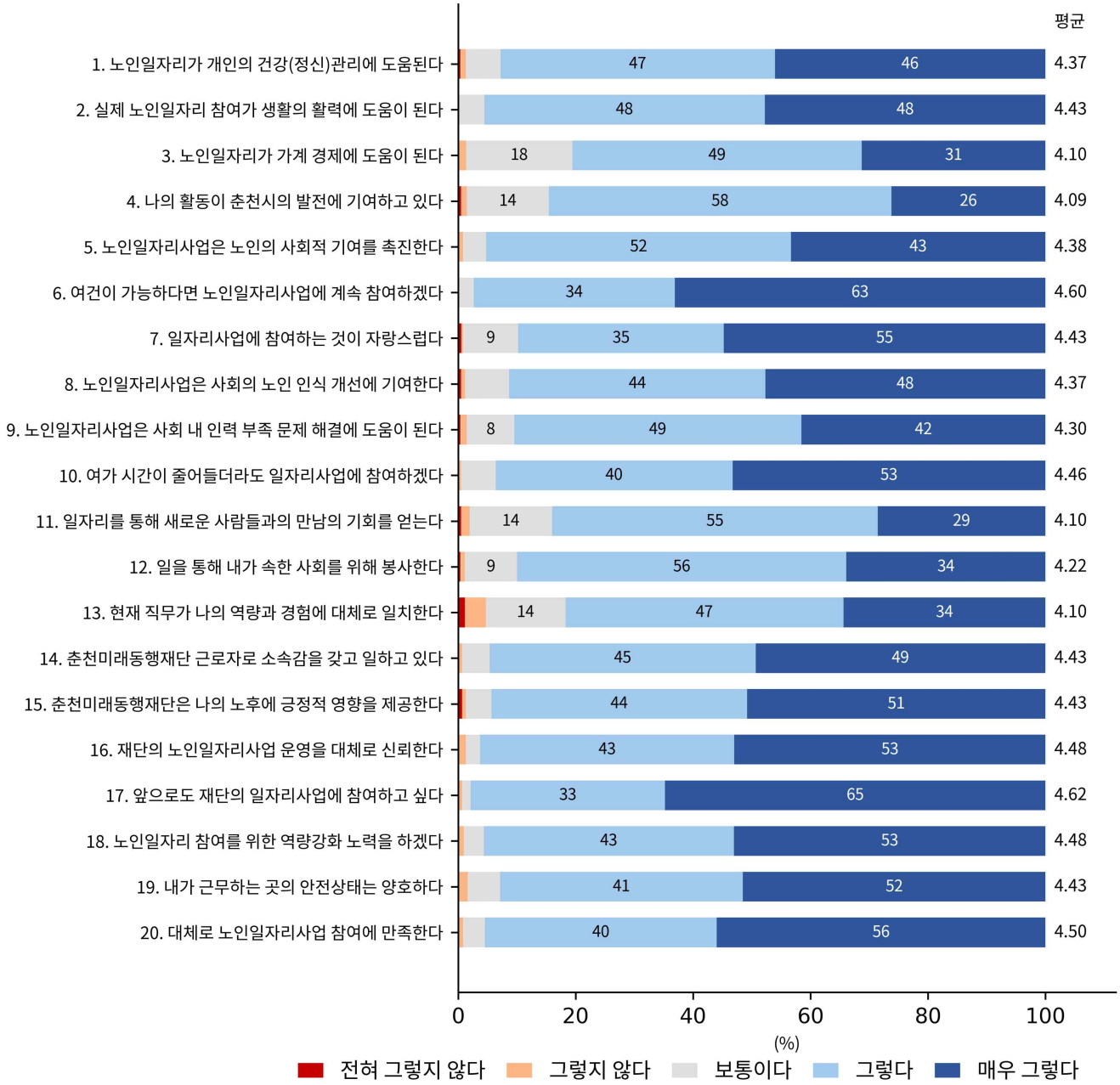
〈그림 2-1〉 노인일자리사업 인식 영역별 평균



○ 상위 문항은 재단 재참여 희망(4.62점), 지속 참여 의향(4.60점), 종합 만족도(4.50점), 재단 운영 신뢰(4.48점), 역량강화 노력 의지(4.48점) 순으로 재단 사업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가 매우 높음

○ 하위 문항은 춘천시 발전 기여(4.09점), 가계 경제 도움·직무 일치도·새로운 만남 기회(각 4.10점)로, 급여 수준, 경력 기반 배치, 관계 형성 기회가 상대적 개선 지점임

〈그림 2-2〉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20개 문항 응답 분포 및 평균



3. 향후 발전방향

○ 춘천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분야는 일자리사업 확대운영(61.9%)이며, 건강·돌봄서비스 확대(19.0%),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14.7%)가 뒤를 이음

○ 재단 사업 개선 요소는 다양한 수요처 확보(87.4%)가 절대다수이고, 참여 불편사항은 낮은 급여(33.7%)가 1순위이나 "불편 없음" 응답도 약 120명에 달하며, 거리·교통·근무환경·계약 연속성 등이 실질적 애로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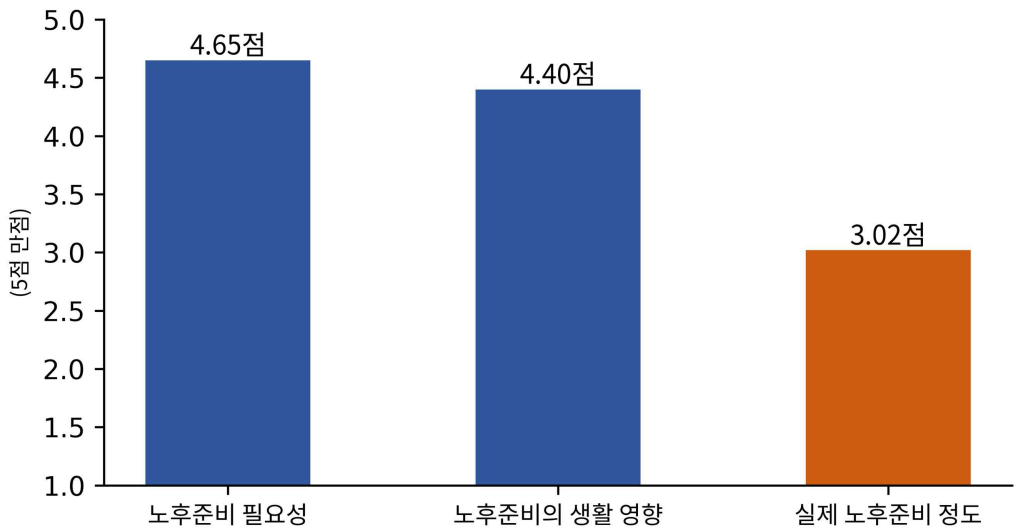
○ 희망 일자리 유형은 공공기관 행정지원(25.2%)·아동·청소년(24.2%)·보건·건강관리(13.1%)·상담·멘토링(11.6%) 순으로 사무·교육 경력 연계형 직무 선호가 뚜렷함

○ 정기교육 개선점은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72.9%), 희망 소양교육은 건강관리(33.4%)·디지털 교육(17.3%)·노후준비 상담(15.8%), 선호 문화활동은 문화공연 관람(61.9%)·관광(17.7%)임

4. 노후준비 인식조사

○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은 평균 4.65점(긍정 95.9%), 노후준비의 노년생활 영향은 4.40점(긍정 86.3%)으로 매우 높으나, 실제 준비 정도는 3.02점(준비됨 34.2%, 미흡 28.4%)에 머물러 인식과 실천 간 격차가 큼

〈그림 2-3〉 노후준비 필요성·영향 인식과 실제 준비 정도 비교



○ 노후준비에 가장 필요한 점은 노후준비 교육(50.8%)과 정보습득(25.9%)이며, 적정 준비 시작 시기는 40대(30.1%)·50대(28.5%)로 중장년기 조기 준비의 중요성을 노년기 참여자들이 경험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Ⅲ.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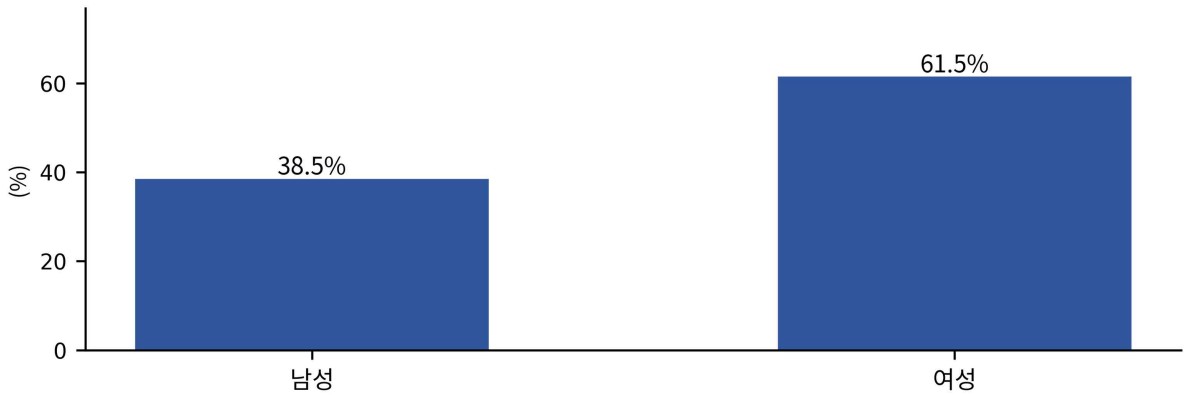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1.5%(377명)로 남성 38.5%(236명)보다 23.0%p 많음

○ 2024년 춘천시민 노후준비 실태조사(만 45~64세, 남 50.6%·여 49.4%)와 비교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 단계에서는 여성 참여가 뚜렷하게 높아 돌봄·교육·행정지원 등 여성 친화적 직무 비중이 높은 역량활용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춘천시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남성 43.7%(29,324명), 여성 56.3%(37,722명)(2026년 8월말 주민등록 기준, 총 67,046명)

〈그림 3-1〉 성별

[BASE: 응답자, n=613명, 단위: %]



〈표 3-1〉 춘천시 노인 인구와 재단 참여자 성별 구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춘천시 65세 이상 인구 (2026. 8월말, 67,046명)	43.7%(29,324명)	56.3%(37,722명)
재단 역량활용사업 응답자(n=613)	38.5%(236명)	61.5%(377명)
차이	**-5.2%p**	**+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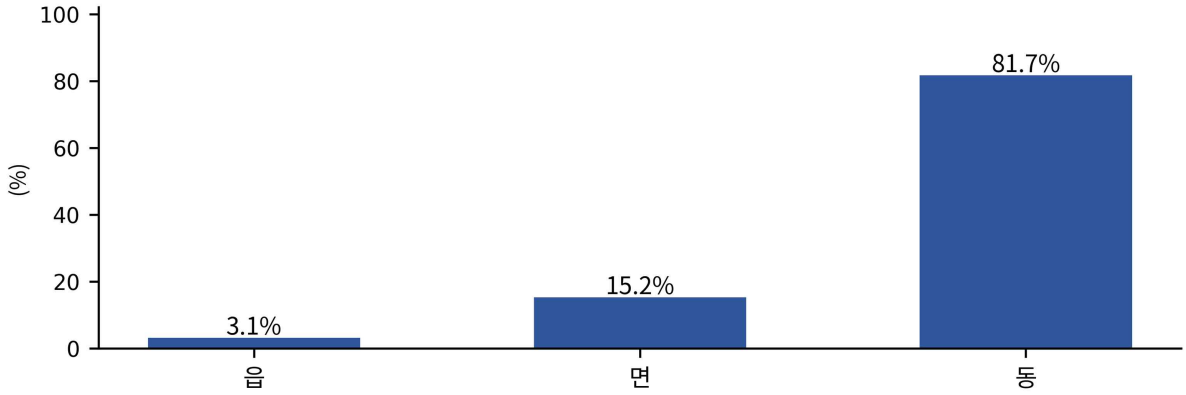
2) 거주지역

○ 거주지역은 동 지역이 81.7%(49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면 15.2%(93명), 읍 3.1%(19명) 순임

○ 읍·면 거주자가 18.3%(112명)에 이르는 만큼 농촌지역 거주자의 출퇴근 거리·대중교통 접근성이 참여 지속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권역별 수요처 배치가 필요함

〈그림 3-2〉 거주지역

[BASE: 응답자, n=611명, 단위: %]



〈표 3-2〉 거주지역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읍	19	3.1
면	93	15.2
동	499	81.7
합계	**611**	**100.0**

3) 연령분포

○ 만 60~64세 참여자(15.4%, 94명)는 기초연금(65세부터)은 물론 국민연금도 대부분 아직 받지 못하는 연령대임(현재 60~64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63~64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가능)

○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3.0세로 연금 수급까지 약 10년의 공백이 발생하며, 55~79세의 69.2%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 1순위는 '생활비 보탬'(53.4%)임(통계청,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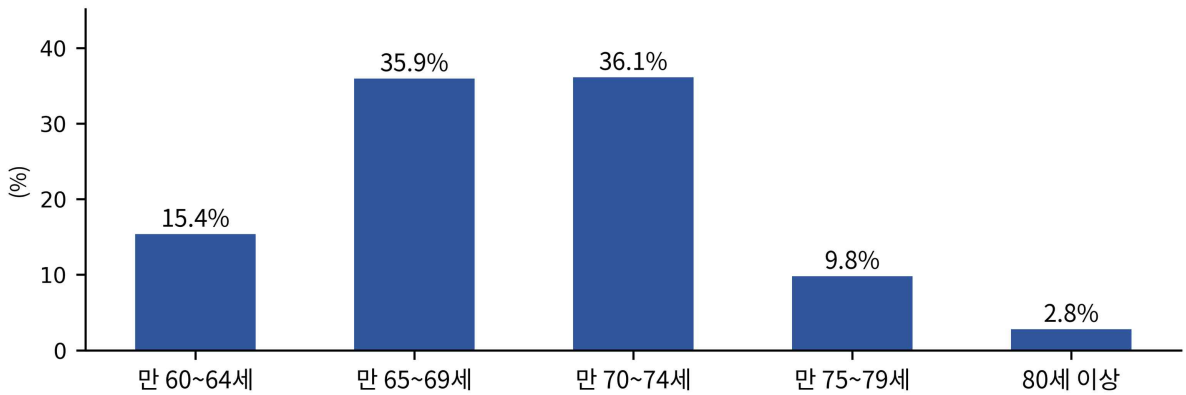
○ 재단이 2026년 6월 분석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국노총, n=1,000)에서도 고령층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95.1%, 정년 연장 찬성 이유 1순위가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으로 나타나,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고령층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춘천미래동행재단 정책개발참고보고서 NO.03, 2026.6.26.)

○ 연령은 만 70~74세 36.1%(221명), 만 65~69세 35.9%(220명)로 두 연령대가 72.0%를 차지하며, 만 60~64세 15.4%를 포함한 만 74세 이하가 87.4%로 압도적임

○ 만 75세 이상은 12.6%(77명)에 그쳐 참여자 다수가 신체·인지 기능이 양호한 전기노인(Young Old)으로, 역량활용형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연령 구조를 보임

〈그림 3-3〉 연령분포

[BASE: 응답자, n=612명, 단위: %]



〈표 3-3〉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만 60~64세	94	15.4
만 65~69세	220	35.9
만 70~74세	221	36.1
만 75~79세	60	9.8
80세 이상	17	2.8
합계	**612**	**100.0**

4) 기초연금 수급여부

○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6%(333명)로 수급자 45.4%(277명)보다 많음

○ 소득·재산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참여자가 절반을 넘어, 공익활동형(기초연금 수급자 대상)과 구별되는 역량활용사업 참여층의 경제적 특성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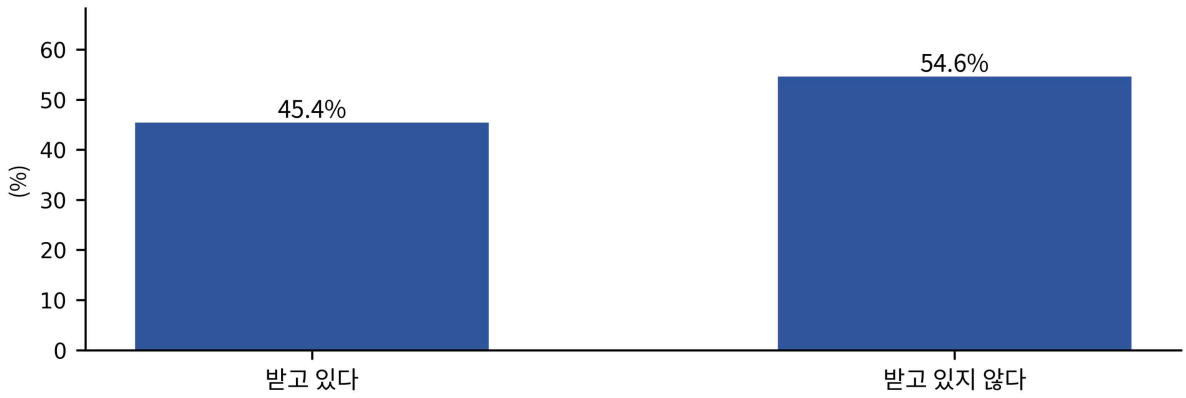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5.3%(2025년 말 기준, 수급자 706만 6천명 / 65세 이상 인구 1,081만 8천명)임(보건복지부, 2026)

○ 본 조사 응답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45.4%이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만 60~64세(94명)를 제외한 65세 이상 응답자 기준으로는 약 53.7%(277명/약 516명)로 전국 평균보다 11.6%p 낮음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므로, 재단 참여자 중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국 노인 평균보다 높음

〈그림 3-4〉 기초연금 수급여부

[BASE: 응답자, n=610명, 단위: %]



〈표 3-4〉 기초연금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받고 있다	277	45.4
받고 있지 않다	333	54.6
합계	**610**	**100.0**

5)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타기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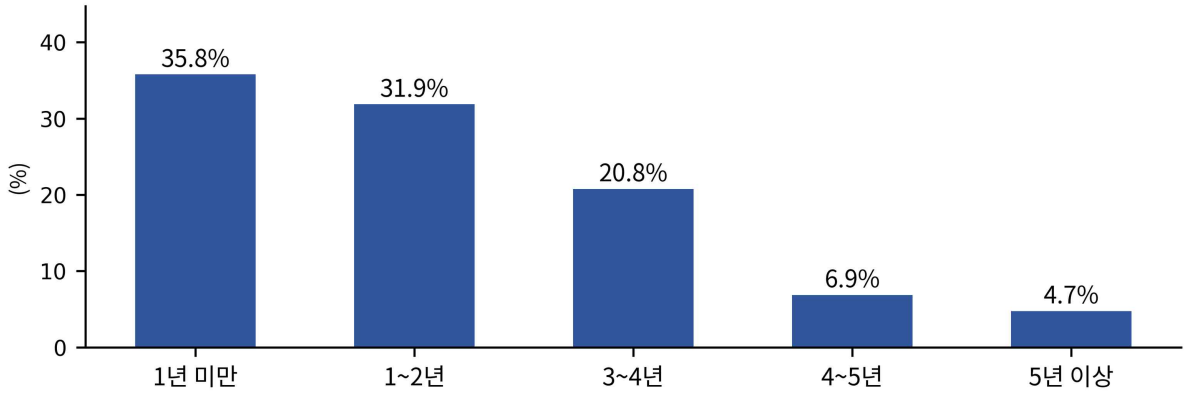
○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은 1년 미만 35.8%(219명), 1~2년 31.9%(195명)로 2년 이하가 67.6%를 차지함

○ 3~4년 20.8%, 4~5년 6.9%, 5년 이상 4.7%로 경력이 길수록 비율이 낮아, 재단 역량 활용사업이 최근 3년간 급속히 확대(2023년 243명→2026년 915명)되면서 신규 참여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로 해석됨

○ 신규 참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초기 직무 적응 지원과 사업 안내·소양교육의 중요성이 큼

〈그림 3-5〉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타기관 포함)

[BASE: 응답자, n=612명, 단위: %]



〈표 3-5〉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타기관 포함)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219	35.8
1~2년	195	31.9
3~4년	127	20.8
4~5년	42	6.9
5년 이상	29	4.7
합계	**612**	**100.0**

6) 재단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 참여경로는 지인 소개가 51.8%(317명)로 절반을 넘고, 재단 홈페이지 25.3%(155명), 춘천시보(봄내소식지) 12.3%(75명), 언론·홍보물 6.5%, 인터넷·SNS 2.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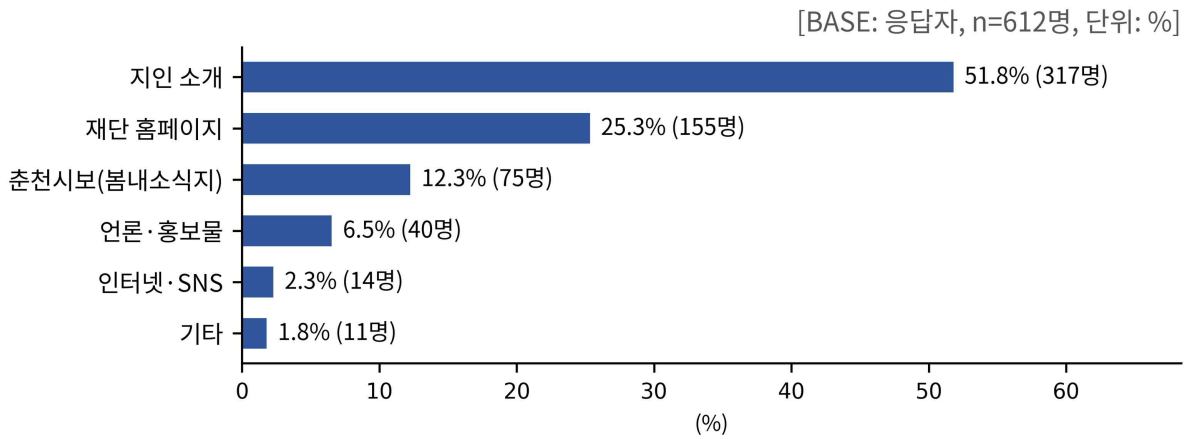
○ 지인 소개 중심의 구전 홍보가 지배적이어서 참여자 만족이 곧 모집 경쟁력임을 시사하며, 재단 홈페이지 이용률(25.3%)이 상당한 점은 참여자의 디지털 접근성이 낮지 않음을 보여줌

○ 기타 응답으로 시청, 시니어박람회(봄내체육관), 아이돌봄 교육기관(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 수행기관(동부디아코니아) 등이 언급됨

○ 지인 소개 중심의 참여 구조는 춘천 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함. 2024년 춘천시민 노후준비 실태조사(만 45~64세)에서도 사회참여 활동을 하게 된 주된 경로로 '가족·이웃·친구'가 63.5%(1+2순위)로 가장 높았고, 특히 읍·면 지역(71.2%)에서 동 지역(60.1%)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인터넷·SNS(2.3%)는 2024년 조사의 'TV·신문·라디오·인터넷 등 대중매체'(49.8%)에 비해 크게 낮아, 노인일자리 참여 단계에서는 온라인 매체보다 대면 관계망과 지역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우세함

〈그림 3-6〉 재단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표 3-6〉 재단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지인 소개	317	51.8
재단 홈페이지	155	25.3
춘천시보(봄내소식지)	75	12.3
언론·홍보물	40	6.5
인터넷·SNS	14	2.3
기타	11	1.8
합계	**612**	**100.0**

2. 응답자 개인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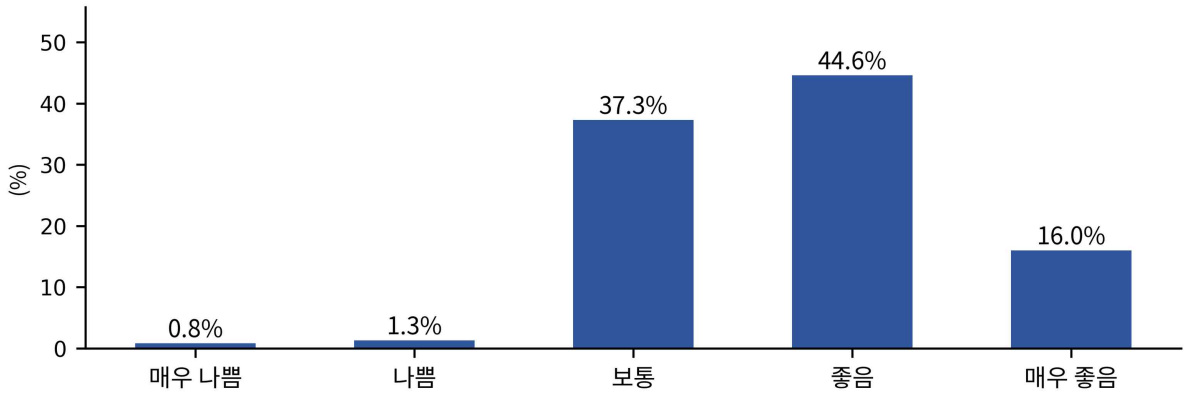
1)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44.6%(276명), 매우 좋음 16.0%(99명)로 긍정 응답이 60.6%이며, 보통 37.3%, 나쁨·매우 나쁨은 2.1%(13명)에 불과함

○ 2021년 춘천시 50대 이후 종합실태조사(n=1,400)에서 50세 이상 시민의 건강상태 긍정 응답이 38.0%, 부정 응답이 16.8%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참여자는 건강 수준이 뚜렷하게 양호한 집단으로 참여 자체가 건강 유지의 선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7〉 건강상태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표 3-7〉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나쁨	5	0.8
나쁨	8	1.3
보통	231	37.3
좋음	276	44.6
매우 좋음	99	16.0
합계	**619**	**100.0**

2) 주거형태

○ 주거형태는 자가가 85.0%(523명)로 대부분이며, 전세 5.4%, 보증부월세 4.7%, 무상임대 2.9%, 월세 2.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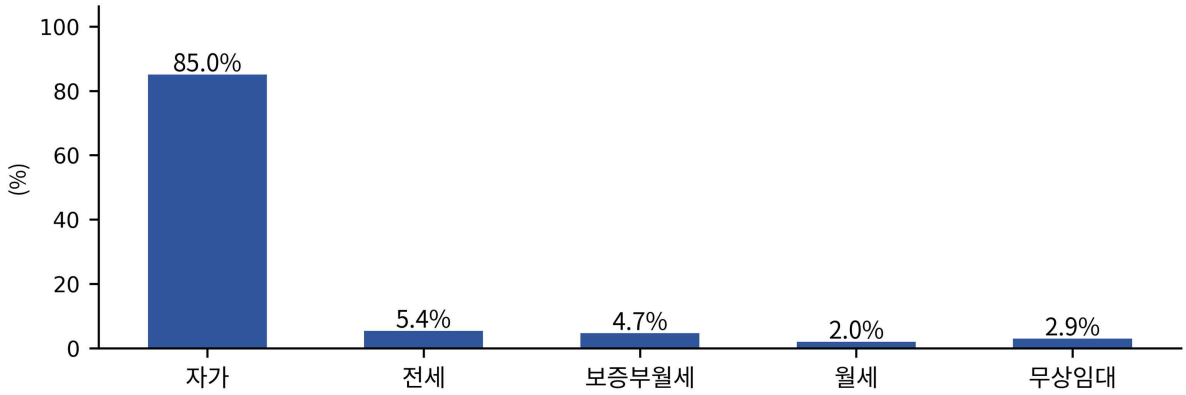
○ 월세·보증부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있는 참여자는 6.7%(41명)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임

○ 전국 고령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자가점유율은 75.9%로 일반가구(58.4%)보다 높으며, 도지역 전체 자가점유율은 69.4%임(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 본 조사 응답자의 자가 비율 85.0%는 전국 고령가구 평균보다 9.1%p 높고, 자가 외 거주(전세·월세·무상임대 등) 비율(15.0%)은 전국 고령가구(약 24%)보다 낮음

〈그림 3-8〉 주거형태

[BASE: 응답자, n=615명, 단위: %]



〈표 3-8〉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	523	85.0
전세	33	5.4
보증부월세	29	4.7
월세	12	2.0
무상임대	18	2.9
합계	**6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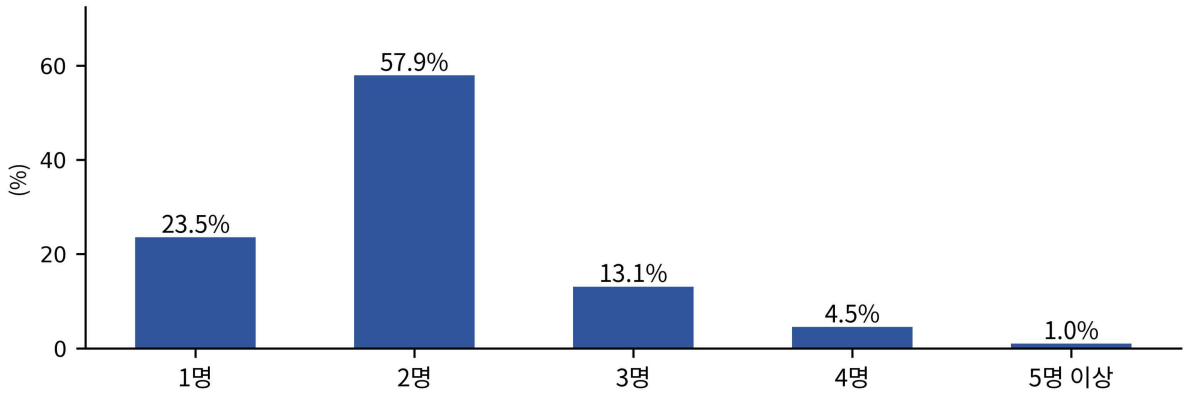
3)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는 2명 57.9%(359명)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3.5%(146명), 3명 13.1%(81명), 4명 이상 5.5% 순임

○ 1인 가구가 4명 중 1명에 가까워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 형성 측면에서 일자리 참여의 의미가 큼

〈그림 3-9〉 가구원 수

[BASE: 응답자, n=620명, 단위: %]



〈표 3-9〉 가구원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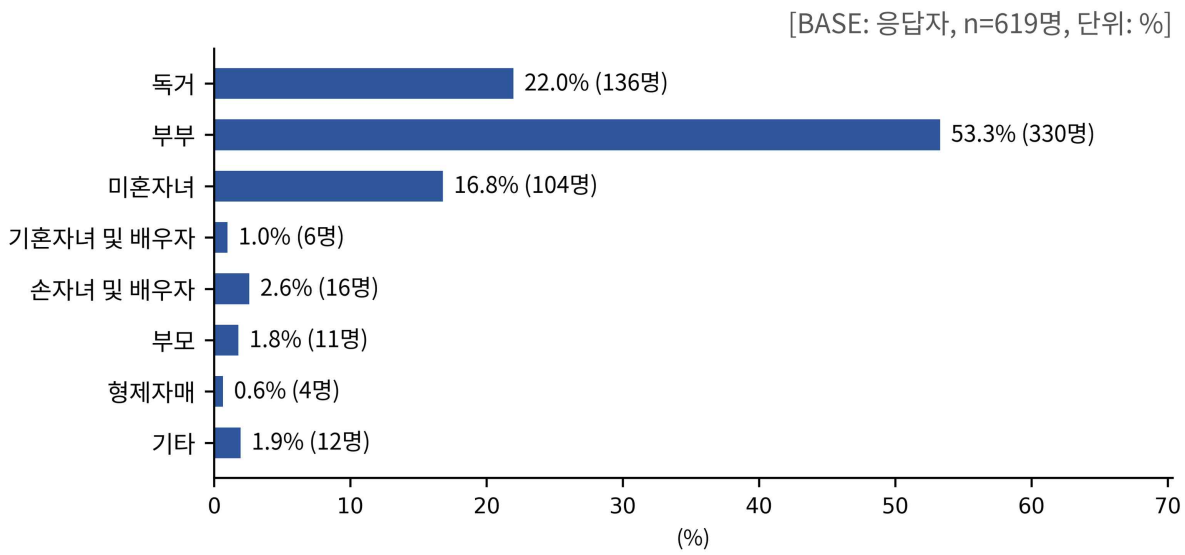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146	23.5
2명	359	57.9
3명	81	13.1
4명	28	4.5
5명 이상	6	1.0
합계	**620**	**100.0**

4) 가족형태

○ 가족형태는 부부 53.3%(330명), 독거 22.0%(136명), 미혼자녀와 동거 16.8%(104명) 순이며, 손자녀 및 배우자 2.6%, 부모 1.8%, 기혼자녀 및 배우자 1.0% 등임

○ 부부 또는 독거 가구가 75.3%로 자녀와 분리된 노년기 가구 형태가 일반적이며, 특히 독거 참여자 136명에 대해서는 건강·정서 지원과 연계한 관리가 요구됨

〈그림 3-10〉 가족형태



〈표 3-10〉 가족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독거	136	22.0
부부	330	53.3
미혼자녀	104	16.8
기혼자녀 및 배우자	6	1.0
손자녀 및 배우자	16	2.6
부모	11	1.8
형제자매	4	0.6
기타	12	1.9
합계	**619**	**100.0**

5) 최종학력

○ 최종학력은 대학교(4년제 이상) 37.7%(232명), 고등학교 33.8%(208명), 대학(4년제 미만) 15.8%(97명) 순으로, 고졸 이상이 87.3%, 대학 이상이 53.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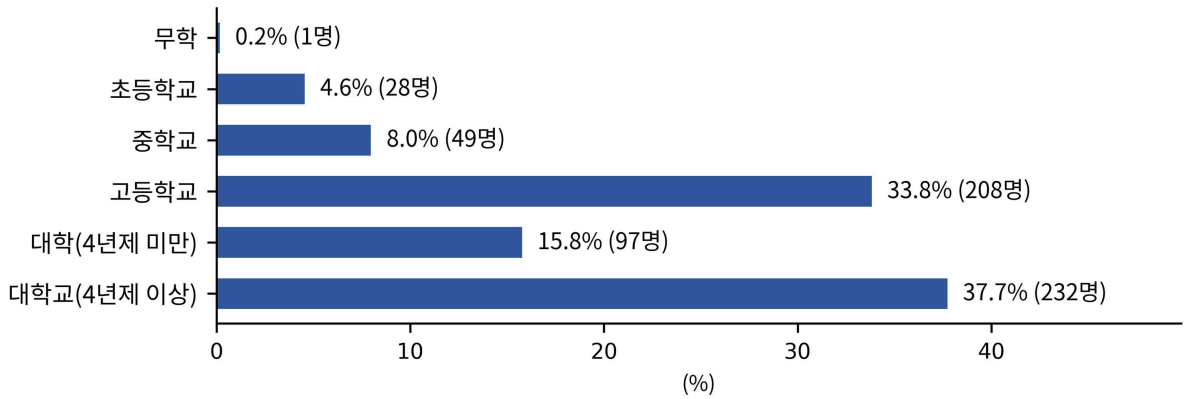
○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만 45~64세)의 대졸 이상 47.8%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재단 역량활용사업이 고학력 신노년층을 실제로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공익활동형이 다수)의 학력은 2025년 기준 중졸 이하 59.1%, 고졸 32.1%, 대졸 이상 8.8%로 고졸 이상이 40.9%임(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 춘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7,626명(2025년) 중에서도 공익형이 5,072명(68.5%)으로 다수를 차지함

○ 전국 참여자의 고졸 이상 비율은 2013년 21.0%에서 2025년 40.9%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재단 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학력 수준은 이 추세를 크게 앞서고 있음

〈그림 3-11〉 최종학력

[BASE: 응답자, n=615명, 단위: %]



〈표 3-11〉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무학	1	0.2
초등학교	28	4.6
중학교	49	8.0
고등학교	208	33.8
대학(4년제 미만)	97	15.8
대학교(4년제 이상)	232	37.7
합계	**615**	**100.0**

〈표 3-11-1〉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 재단 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학력 비교

(단위: 명,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2025)	59.1	32.1	8.8
재단 역량활용사업 참여자(2026)	12.7	33.8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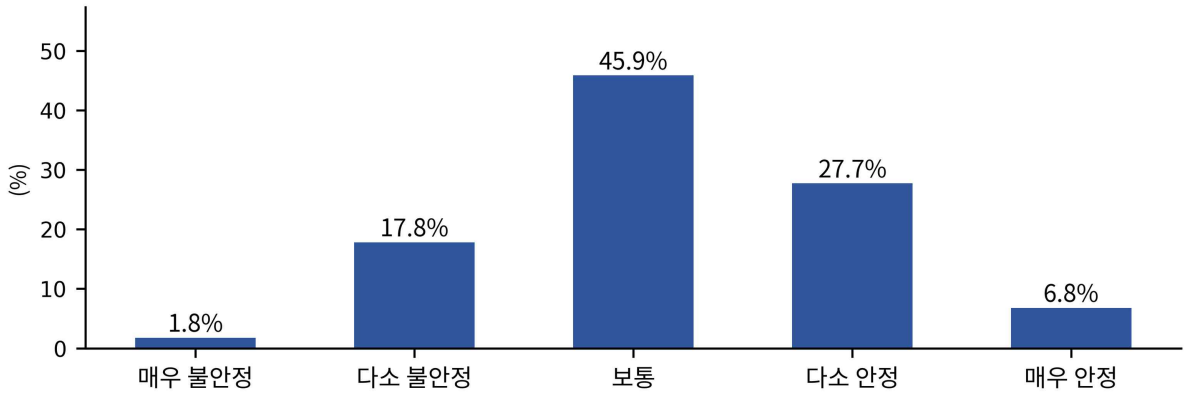
6) 경제상황

○ 주관적 경제상황은 보통 45.9%(283명)가 가장 많고, 다소 안정 27.7%(171명), 다소 불안정 17.8%(110명), 매우 안정 6.8%, 매우 불안정 1.8% 순임

○ 안정(34.5%)이 불안정(19.6%)보다 많지만, 5명 중 1명은 경제적 불안정을 느끼고 있어 일자리 급여의 소득 보완 기능이 여전히 중요함

〈그림 3-12〉 경제상황

[BASE: 응답자, n=617명, 단위: %]



〈표 3-12〉 경제상황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안정	11	1.8
다소 불안정	110	17.8
보통	283	45.9
다소 안정	171	27.7
매우 안정	42	6.8
합계	**617**	**100.0**

7) 참여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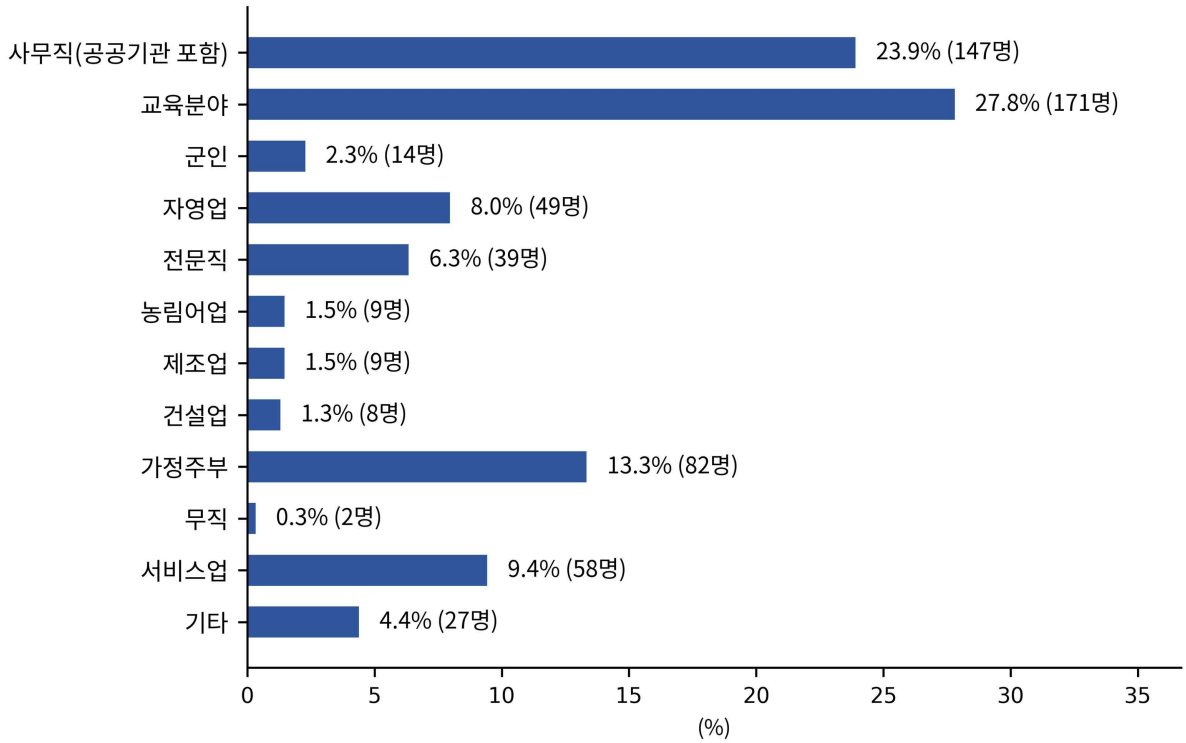
○ 참여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종은 교육분야 27.8%(171명), 사무직(공공기관 포함) 23.9%(147명)로 두 직군이 51.7%를 차지하며, 가정주부 13.3%, 서비스업 9.4%, 자영업 8.0%, 전문직 6.3%, 군인 2.3% 순임

○ 사무·교육·전문직·군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경력자가 60.3%(371명)로,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 경력자(4.2%)를 크게 웃돌아 역량활용형 직무(행정지원, 학습지도, 아이돌봄 등)와 경력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인력 풀임

○ 기타 응답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유치원 조리사, 안경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법무사무소, 경비원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 경력이 확인됨

〈그림 3-13〉 참여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종

[BASE: 응답자, n=615명, 단위: %]



〈표 3-13〉 참여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종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사무직(공공기관 포함)	147	23.9
교육분야	171	27.8
군인	14	2.3
자영업	49	8.0
전문직	39	6.3
농림어업	9	1.5
제조업	9	1.5
건설업	8	1.3
가정주부	82	13.3
무직	2	0.3
서비스업	58	9.4
기타	27	4.4
합계	**6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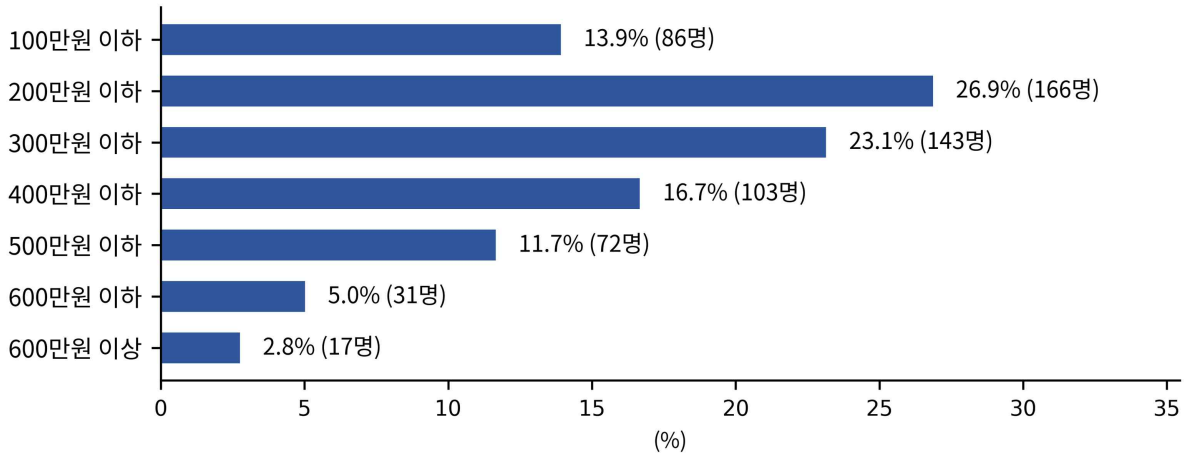
8) 월평균 가계소득(부부합산)

○ 월평균 가계소득(부부합산)은 200만원 이하 26.9%(166명), 300만원 이하 23.1%(143명), 400만원 이하 16.7%(103명), 100만원 이하 13.9%(86명) 순임

○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40.8%(252명)인 반면, 300만원 초과 가구도 36.2%(223명)로 소득 분포의 폭이 넓어, 경제적 필요형과 사회참여형 참여자가 공존하는 구조임

〈그림 3-14〉 월평균 가계소득(부부합산)

[BASE: 응답자, n=618명, 단위: %]



〈표 3-14〉 월평균 가계소득(부부합산)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원 이하	86	13.9
200만원 이하	166	26.9
300만원 이하	143	23.1
400만원 이하	103	16.7
500만원 이하	72	11.7
600만원 이하	31	5.0
600만원 이상	17	2.8
합계	**6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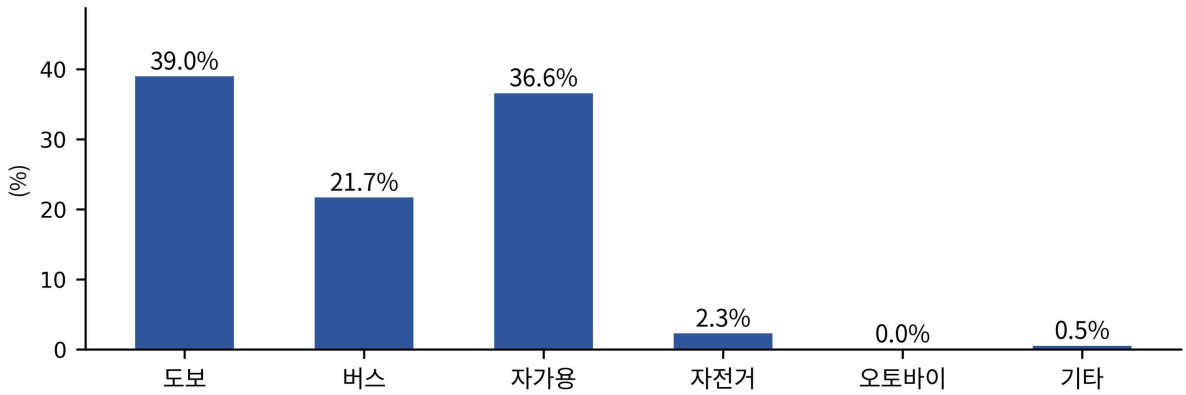
9) 일자리 참여 시 교통수단

○ 출퇴근 교통수단은 도보 39.0%(241명), 자가용 36.6%(226명), 버스 21.7%(134명) 순이며, 자전거 2.3%, 기타(택시·전철) 0.5%임

○ 자가용 이용률이 36.6%로 높은 점은 참여자의 활동성과 경제력을 반영하는 한편, 버스·도보 의존자가 60.7%인 만큼 근무지 접근성이 참여 지속의 핵심 조건임(주관식에서도 거리·교통비·버스노선 불편이 반복 언급됨)

〈그림 3-15〉 일자리 참여 시 교통수단

[BASE: 응답자, n=618명, 단위: %]



〈표 3-15〉 일자리 참여 시 교통수단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도보	241	39.0
버스	134	21.7
자가용	226	36.6
자전거	14	2.3
오토바이	0	0.0
기타	3	0.5
합계	**618**	**100.0**

10) 노인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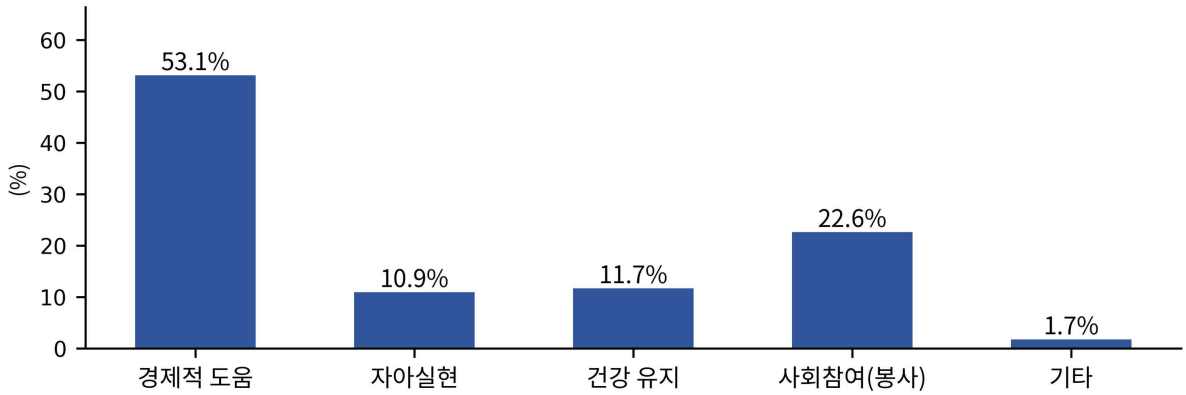
○ 노인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도움이 54.3%(336명)로 과반이며, 사회참여(봉사) 23.1%(143명), 건강 유지 12.0%(74명), 자아실현 11.1%(69명) 순임

○ 경제적 동기가 최우선이나 사회참여·건강·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동기도 46.2%에 달해, 급여 수준 개선과 함께 일의 보람·관계·자기계발을 충족하는 직무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 기타 응답으로 "출근하는 보람", "일상 유지" 등이 제시되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도 참여 동기로 작용함

〈그림 3-16〉 노인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이유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표 3-16〉 노인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도움	336	53.1
자아실현	69	10.9
건강 유지	74	11.7
사회참여(봉사)	143	22.6
기타	11	1.7
합계	633	100.0

3.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인적·사회적 효과와 재단 운영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20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전 문항 평균 4.09~4.62점, 긍정응답률 80.6~97.9%로 매우 긍정적임

〈표 3-17〉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조사 문항별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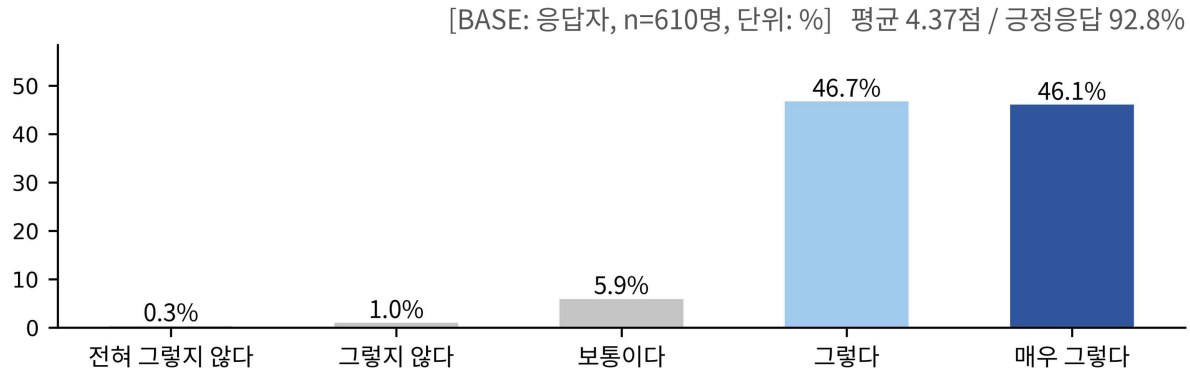
(단위: 점, %) ※ 5점 만점, 긍정응답률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순위	문항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긍정응답률	부정응답률
1	17. 앞으로도 재단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619	4.62	0.56	97.9	0.6
2	6.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	610	4.60	0.56	97.4	0.2
3	20.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만족한다	620	4.50	0.62	95.5	0.8
4	16. 재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대체로 신뢰한다	619	4.48	0.62	96.3	1.3
5	18.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하겠다	620	4.48	0.62	95.6	1.0
6	10.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겠다	610	4.46	0.64	93.6	0.5
7	2.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가 생활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609	4.43	0.59	95.6	0.2
8	7.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608	4.43	0.72	89.8	0.8
9	14. 춘천미래동행재단 근로자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618	4.43	0.62	94.7	0.6
10	15. 춘천미래동행재단은 나의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	620	4.43	0.67	94.4	1.3
11	19. 내가 근무하는 곳의 안전상태는 양호하다	619	4.43	0.68	92.9	1.6
12	5.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한다	609	4.38	0.61	95.2	0.8
13	1. 노인일자리가 개인의 건강(정신)관리에 도움된다	610	4.37	0.67	92.8	1.3
14	8.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의 노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610	4.37	0.70	91.3	1.1
15	9.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609	4.30	0.69	90.5	1.5
16	12. 일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619	4.22	0.66	90.0	1.1
17	3. 노인일자리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607	4.10	0.74	80.6	1.3
18	11.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는다	620	4.10	0.72	84.0	1.9
19	13. 현재 직무가 나의 역량과 경험에 대체로 일치한다	619	4.10	0.84	81.7	4.7
20	4. 나의 활동이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10	4.09	0.69	84.6	1.5

1) 노인일자리가 개인의 건강(정신)관리에 도움된다

○ 건강(정신)관리 도움은 긍정 응답 92.8%, 평균 4.37점으로 일자리 참여가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

〈그림 3-17〉 노인일자리가 개인의 건강(정신)관리에 도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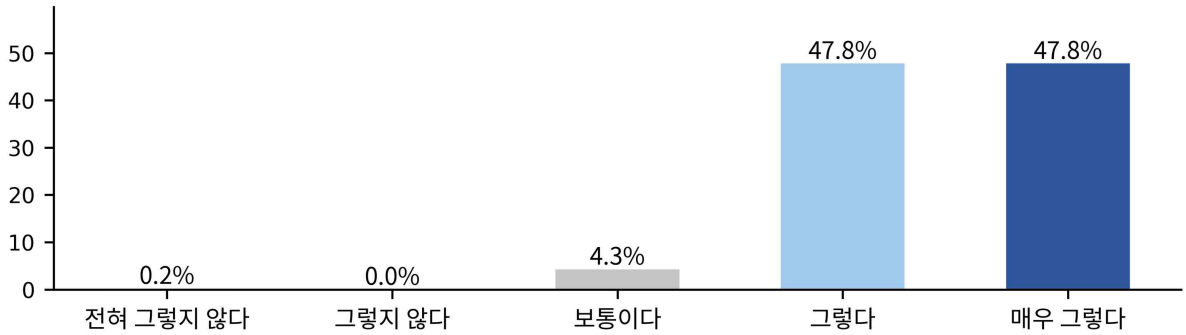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2	6	36	285	281	610	4.37	0.67
0.3	1.0	5.9	46.7	46.1	100.0		

2)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가 생활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 생활 활력 도움은 긍정 응답 95.6%(그렇다 47.8%, 매우 그렇다 47.8%), 평균 4.43점으로 부정 응답이 단 1명에 그쳐 규칙적 출근과 활동이 생활 리듬과 활력 유지에 기여함을 보여줌

〈그림 3-18〉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가 생활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BASE: 응답자, n=609명, 단위: %] 평균 4.43점 / 긍정응답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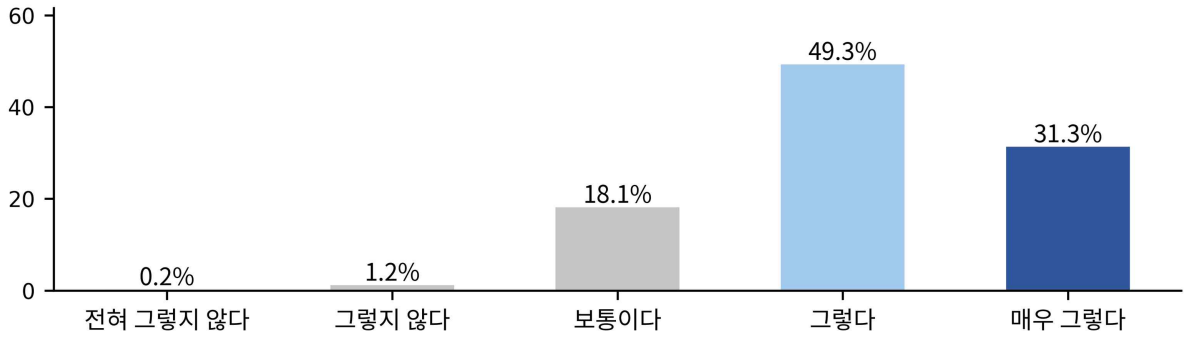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0	26	291	291	609	4.43	0.59
0.2	0.0	4.3	47.8	47.8	100.0		

3) 노인일자리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 가계 경제 도움은 긍정 응답 80.6%, 평균 4.10점으로 20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보통 응답이 18.1%(110명)로 높아, 참여 동기 1순위가 경제적 도움(54.3%)임에도 급여 수준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Ⅳ-3 불편사항 1순위 "낮은 급여"와 일치)

〈그림 3-19〉 노인일자리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BASE: 응답자, n=607명, 단위: %] 평균 4.10점 / 긍정응답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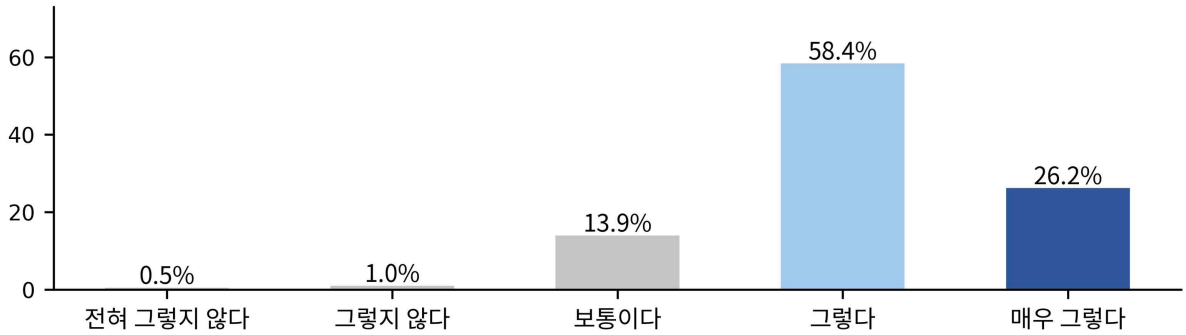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7	110	299	190	607	4.10	0.74
0.2	1.2	18.1	49.3	31.3	100.0		

4) 나의 활동이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춘천시 발전 기여 인식은 긍정 응답 84.6%, 평균 4.09점으로 매우 그렇다(26.2%)보다 그렇다(58.4%)가 많아, 개인 활동이 지역 발전에 연결된다는 체감을 높이기 위한 성과 공유·피드백이 필요함

〈그림 3-20〉 나의 활동이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BASE: 응답자, n=610명, 단위: %] 평균 4.09점 / 긍정응답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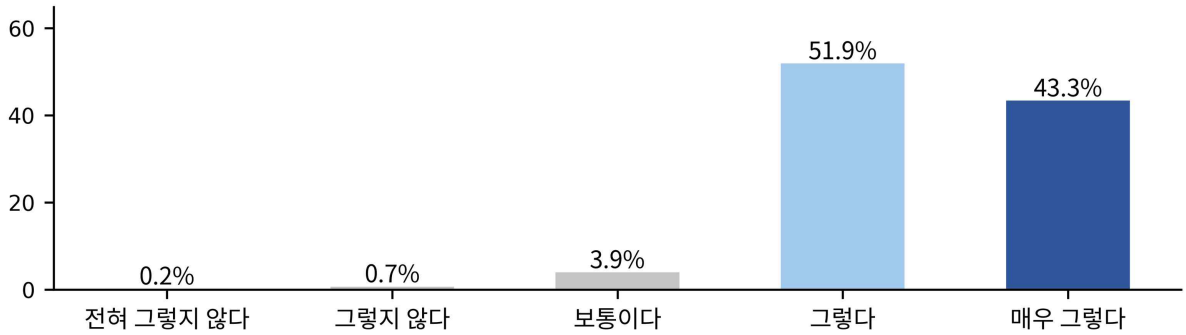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3	6	85	356	160	610	4.09	0.69
0.5	1.0	13.9	58.4	26.2	100.0		

5)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한다

○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에 대해 긍정 응답 95.2%, 평균 4.38점으로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음

〈그림 3-21〉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한다

[BASE: 응답자, n=609명, 단위: %] 평균 4.38점 / 긍정응답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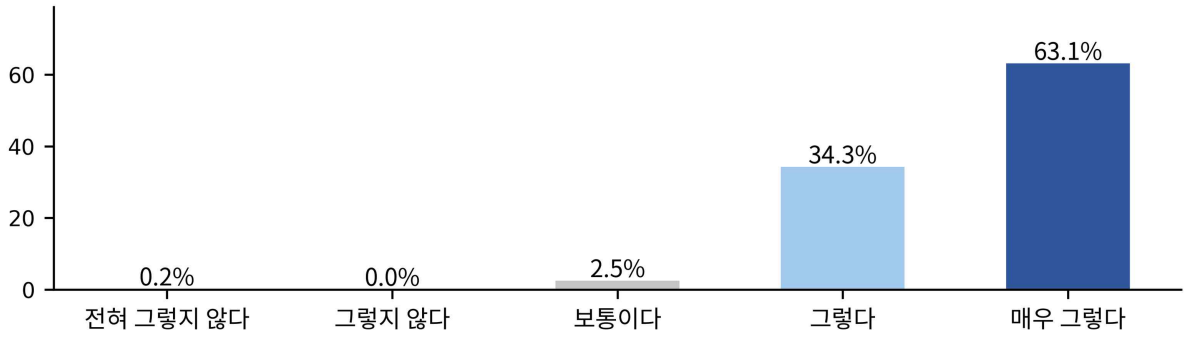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4	24	316	264	609	4.38	0.61
0.2	0.7	3.9	51.9	43.3	100.0		

6)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

○ 여건이 가능하다면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긍정 97.4%(매우 그렇다 63.1%), 평균 4.60점으로 지속 참여 의지가 매우 강함

〈그림 3-22〉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

[BASE: 응답자, n=610명, 단위: %] 평균 4.60점 / 긍정응답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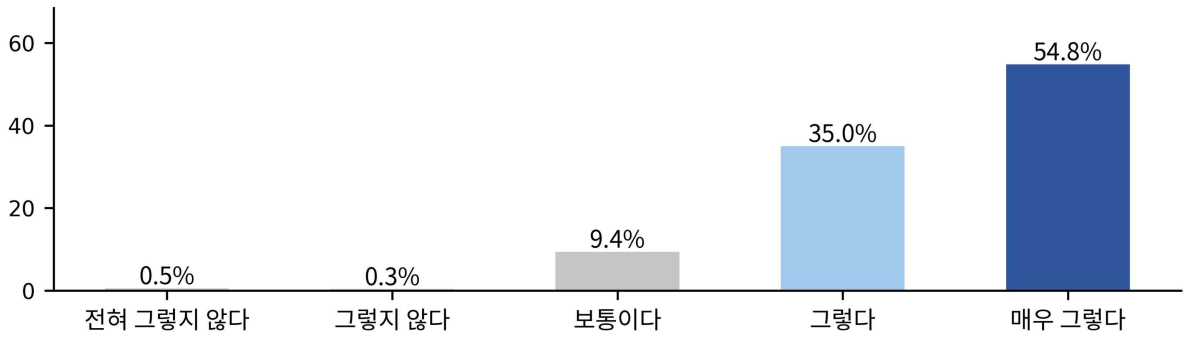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0	15	209	385	610	4.60	0.56
0.2	0.0	2.5	34.3	63.1	100.0		

7)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 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 응답 89.8%(매우 그렇다 54.8%), 평균 4.43점이나 보통 응답이 9.4%(57명)로, 주관식에서 언급된 "사회인식(일반인에게) 신뢰받지 못함", "자존감 문제" 등 일부 참여자의 인식 개선 과제가 남아 있음

〈그림 3-23〉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BASE: 응답자, n=608명, 단위: %] 평균 4.43점 / 긍정응답 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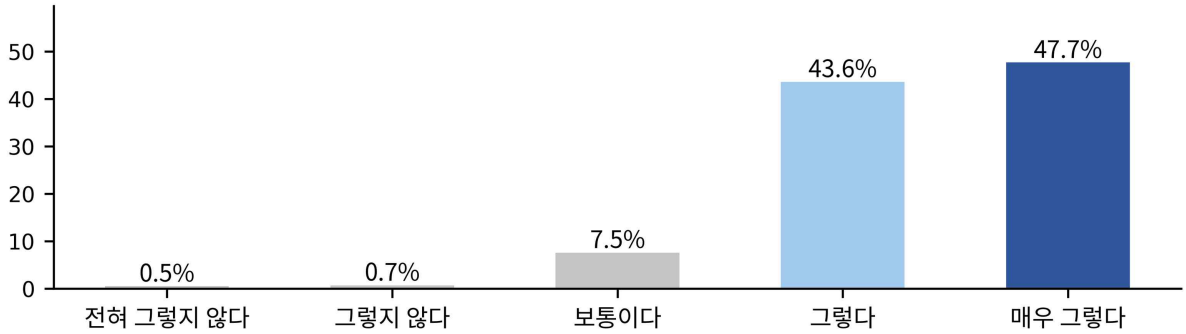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3	2	57	213	333	608	4.43	0.72
0.5	0.3	9.4	35.0	54.8	100.0		

8)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의 노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는 긍정 응답 91.3%, 평균 4.37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4〉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의 노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BASE: 응답자, n=610명, 단위: %] 평균 4.37점 / 긍정응답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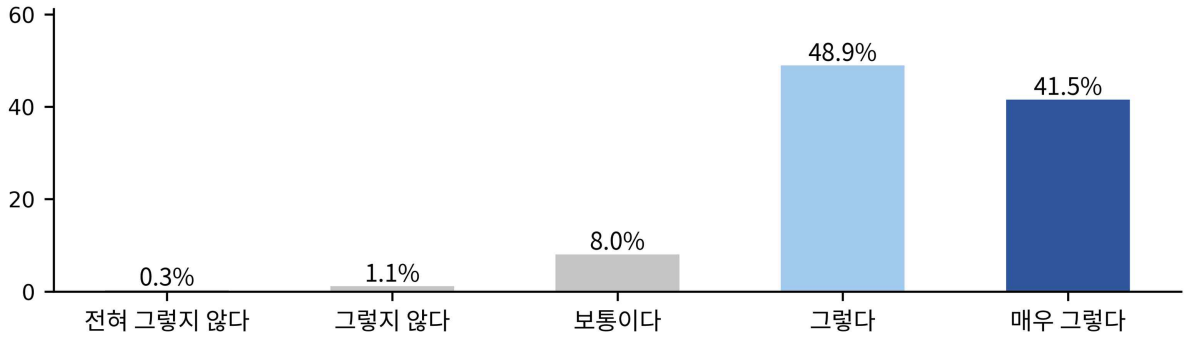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3	4	46	266	291	610	4.37	0.70
0.5	0.7	7.5	43.6	47.7	100.0		

9)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사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도움은 긍정 응답 90.5%, 평균 4.30점으로 참여자 스스로 돌봄·행정 등 지역의 부족 인력을 보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그림 3-25〉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BASE: 응답자, n=609명, 단위: %] 평균 4.30점 / 긍정응답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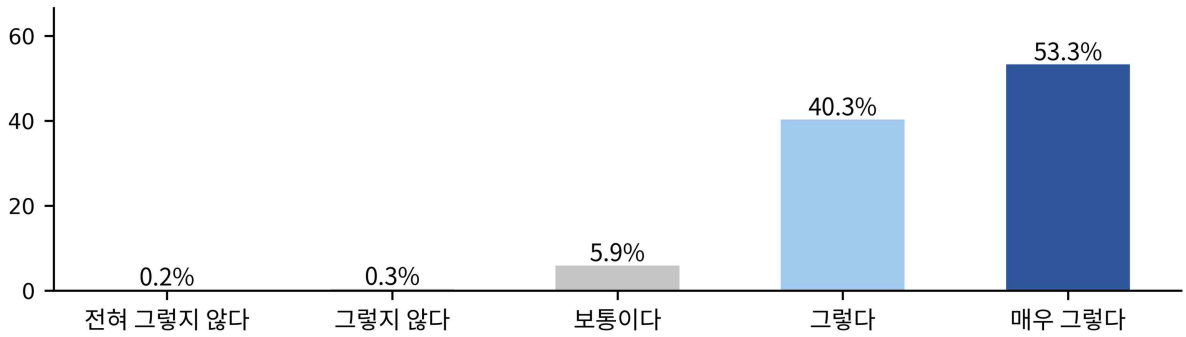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2	7	49	298	253	609	4.30	0.69
0.3	1.1	8.0	48.9	41.5	100.0		

10)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겠다

○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긍정 93.6%(매우 그렇다 53.3%), 평균 4.46점으로 일자리를 여가보다 우선하는 적극적 참여 성향이 확인됨

〈그림 3-26〉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겠다

[BASE: 응답자, n=610명, 단위: %] 평균 4.46점 / 긍정응답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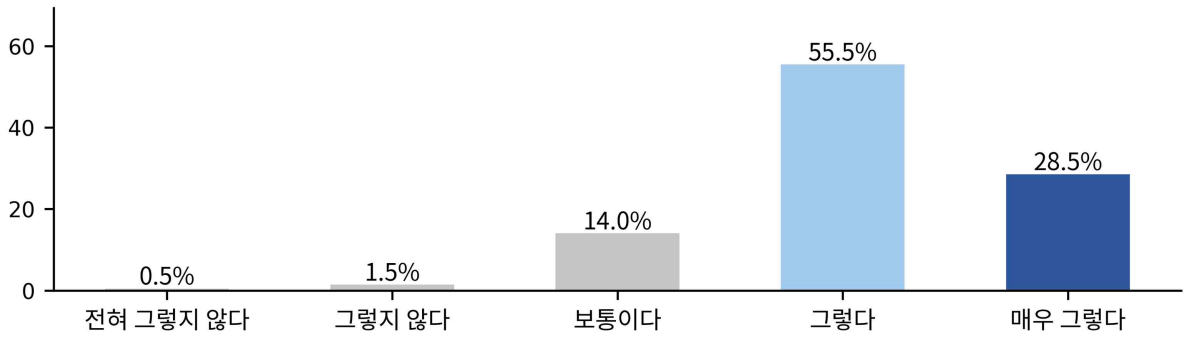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2	36	246	325	610	4.46	0.64
0.2	0.3	5.9	40.3	53.3	100.0		

11)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는다

○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는 긍정 응답 84.0%, 평균 4.1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보통 응답이 14.0%(87명)로, 1인 근무 형태 수요처 참여자의 관계 형성 기회 확대가 필요함

〈그림 3-27〉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는다

[BASE: 응답자, n=620명, 단위: %] 평균 4.10점 / 긍정응답 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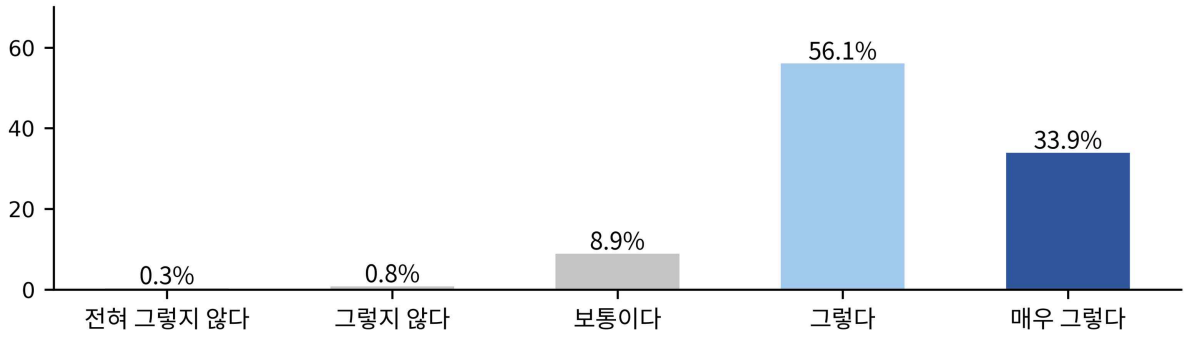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3	9	87	344	177	620	4.10	0.72
0.5	1.5	14.0	55.5	28.5	100.0		

12) 일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 일을 통한 사회 봉사 인식은 긍정 응답 90.0%, 평균 4.22점임

〈그림 3-28〉 일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평균 4.22점 / 긍정응답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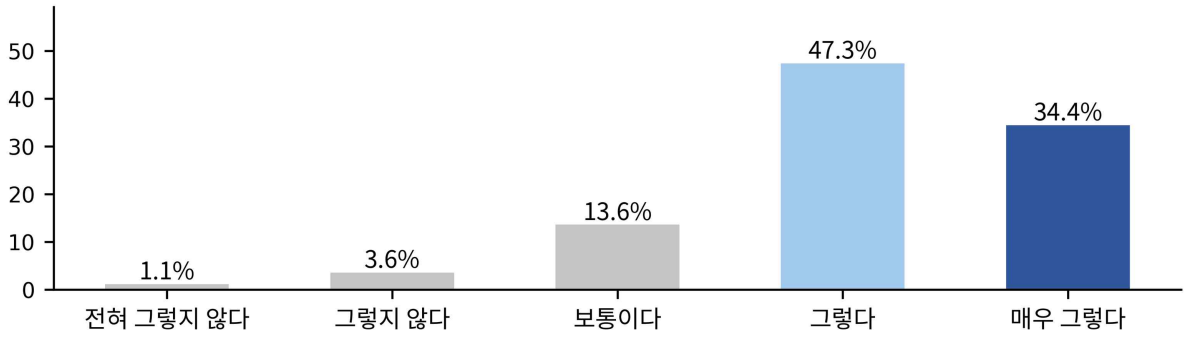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2	5	55	347	210	619	4.22	0.66
0.3	0.8	8.9	56.1	33.9	100.0		

13) 현재 직무가 나의 역량과 경험에 대체로 일치한다

○ 직무-역량·경험 일치도는 긍정 응답 81.7%, 평균 4.10점으로 하위권이며, 부정 응답(4.7%, 29명)과 표준편차(0.84)가 20개 문항 중 가장 커 참여자 간 편차가 가장 큰 문항임. 고학력·전문경력 참여자(대학 이상 53.5%)와 배치 직무 간 미스매치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Ⅳ-2 개선요소 1순위(수요처 다양화 87.4%)와 직결됨

〈그림 3-29〉 현재 직무가 나의 역량과 경험에 대체로 일치한다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평균 4.10점 / 긍정응답 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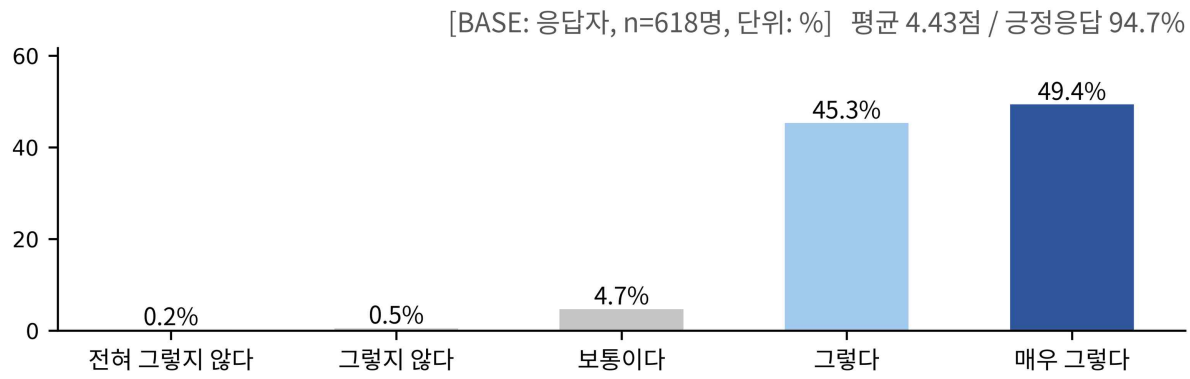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7	22	84	293	213	619	4.10	0.84
1.1	3.6	13.6	47.3	34.4	100.0		

14) 춘천미래동행재단 근로자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 재단 근로자로서의 소속감은 긍정 응답 94.7%(매우 그렇다 49.4%), 평균 4.43점으로 높음

〈그림 3-30〉 춘천미래동행재단 근로자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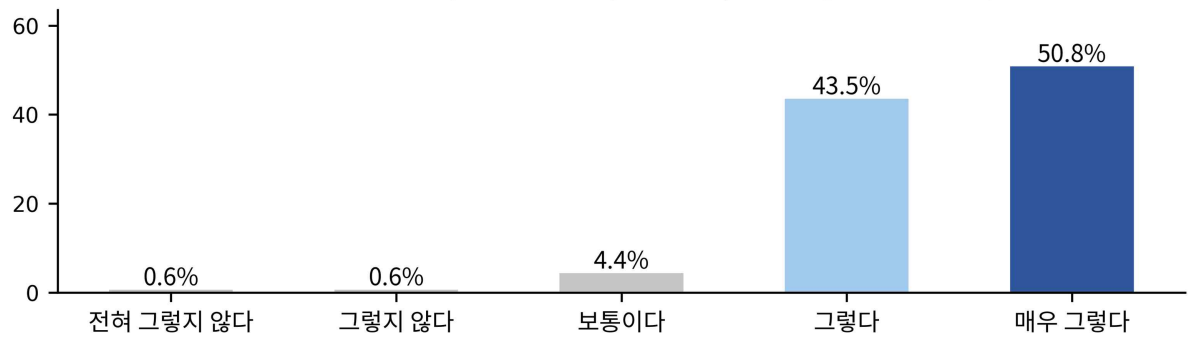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3	29	280	305	618	4.43	0.62
0.2	0.5	4.7	45.3	49.4	100.0		

15) 춘천미래동행재단은 나의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

○ 재단이 나의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는 인식은 긍정 응답 94.4%(매우 그렇다 50.8%), 평균 4.43점임

〈그림 3-31〉 춘천미래동행재단은 나의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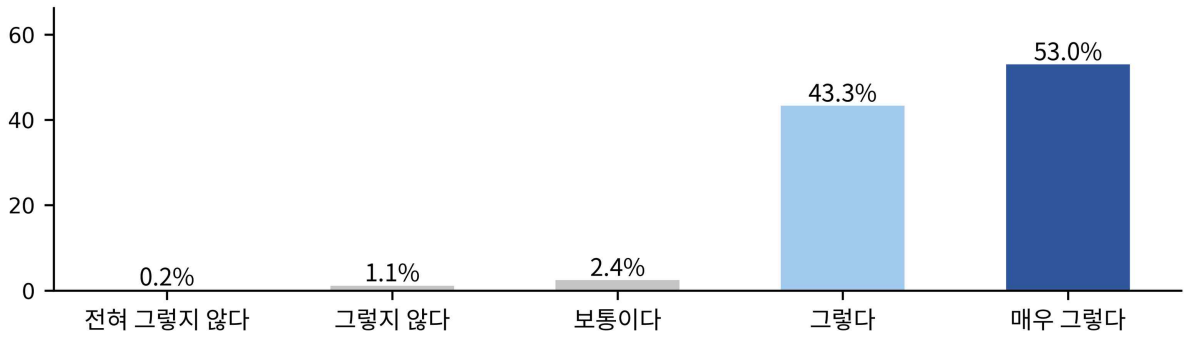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4	4	27	270	315	620	4.43	0.67
0.6	0.6	4.4	43.5	50.8	100.0		

16) 재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대체로 신뢰한다

○ 재단의 사업 운영 신뢰도는 긍정 응답 96.3%(매우 그렇다 53.0%), 평균 4.48점으로 운영 투명성·직원 역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낮았던 Ⅳ-2 결과와 일관됨

〈그림 3-32〉 재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대체로 신뢰한다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평균 4.48점 / 긍정응답 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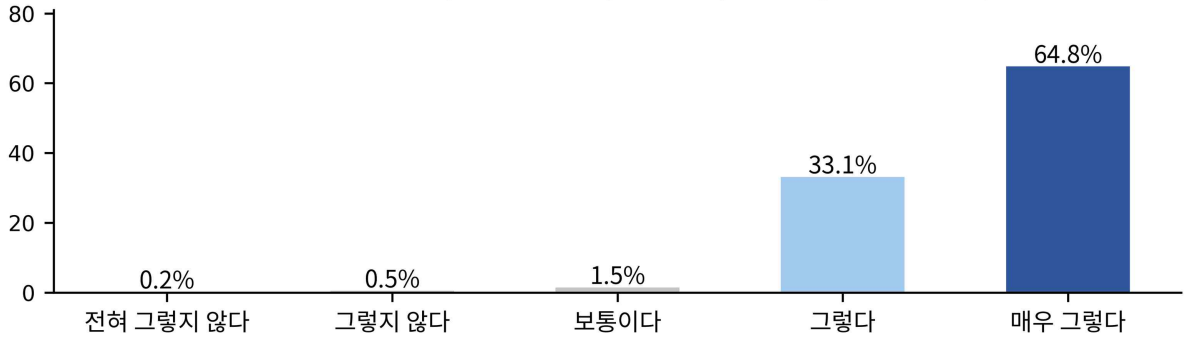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7	15	268	328	619	4.48	0.62
0.2	1.1	2.4	43.3	53.0	100.0		

17) 앞으로도 재단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 향후 재단 일자리사업 재참여 희망은 긍정 응답 97.9%(매우 그렇다 64.8%), 평균 4.62점으로 20개 문항 중 최고점을 기록함

〈그림 3-33〉 앞으로도 재단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BASE: 응답자, n=619명, 단위: %] 평균 4.62점 / 긍정응답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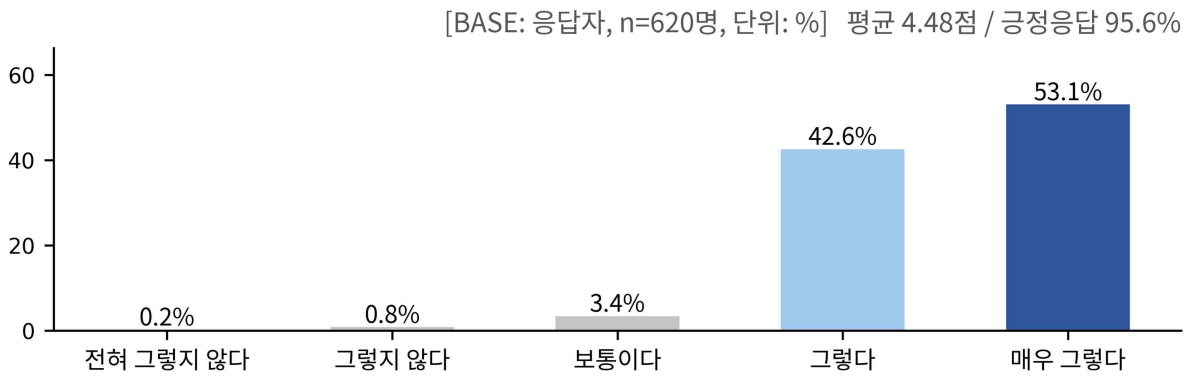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3	9	205	401	619	4.62	0.56
0.2	0.5	1.5	33.1	64.8	100.0		

18)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하겠다

○ 개인적 역량강화 노력 의지는 긍정 응답 95.6%(매우 그렇다 53.1%), 평균 4.48점으로 교육·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잠재력이 높음

〈그림 3-34〉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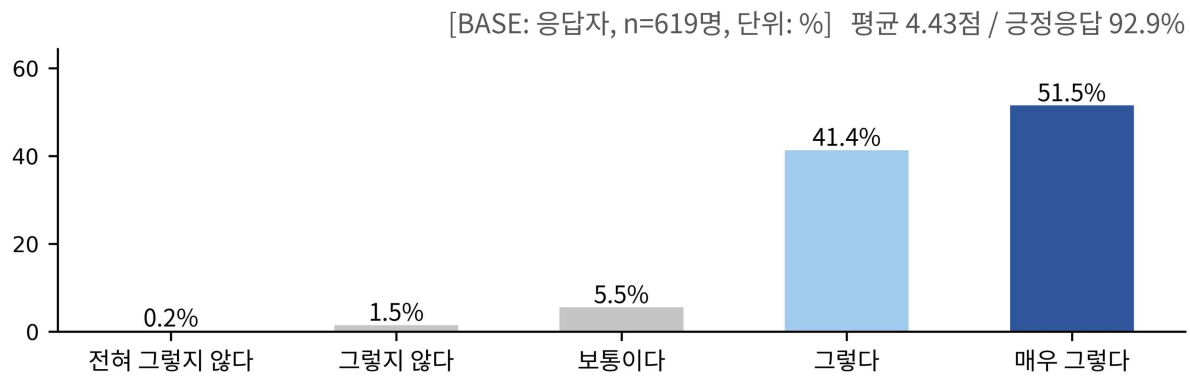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5	21	264	329	620	4.48	0.62
0.2	0.8	3.4	42.6	53.1	100.0		

19) 내가 근무하는 곳의 안전상태는 양호하다

○ 근무지 안전상태는 긍정 응답 92.9%, 평균 4.43점으로 양호하나, 주관식에서 냉난방·지하 주차장 인접 사무실 등 일부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제기됨

〈그림 3-35〉 내가 근무하는 곳의 안전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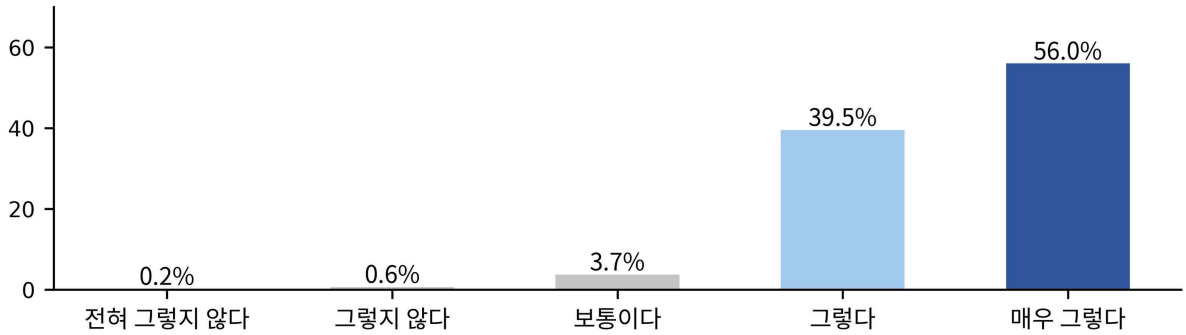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9	34	256	319	619	4.43	0.68
0.2	1.5	5.5	41.4	51.5	100.0		

20)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만족한다

○ 사업 참여 종합 만족도는 긍정 응답 95.5%(매우 그렇다 56.0%), 평균 4.50점으로 부정 응답이 0.8%(5명)에 불과해 매우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그림 3-36〉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만족한다

[BASE: 응답자, n=620명, 단위: %] 평균 4.50점 / 긍정응답 95.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4	23	245	347	620	4.50	0.62
0.2	0.6	3.7	39.5	5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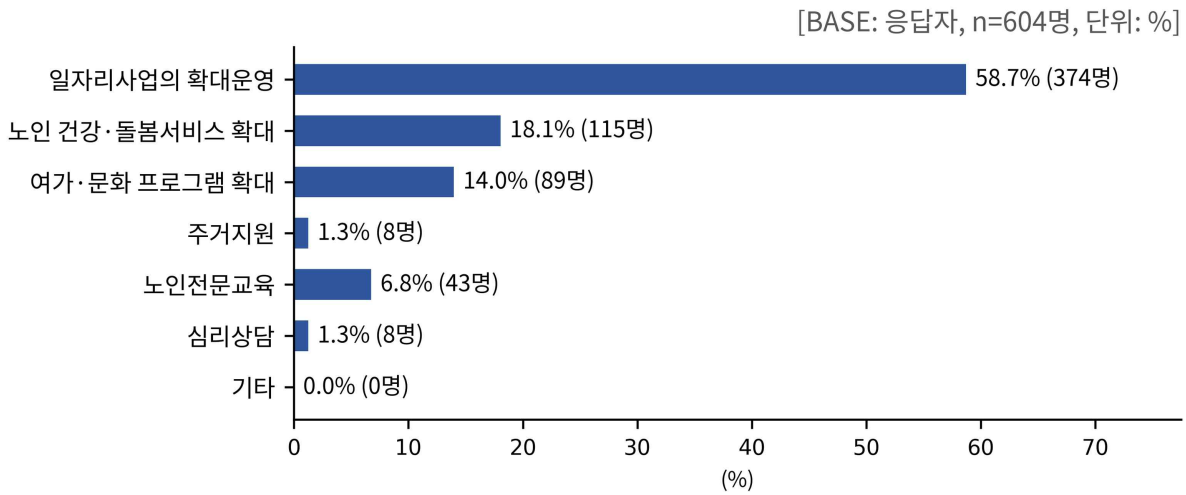
4. 노인일자리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1) 향후 춘천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분야

○ 향후 춘천시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로 일자리사업의 확대운영이 61.9%(374명)로 압도적이며, 노인 건강·돌봄서비스 확대 19.0%(115명),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14.7%(89명), 노인전문교육 7.1%, 주거지원·심리상담 각 1.3% 순임

○ 2024년 춘천시민 노후준비 실태조사(만 45~64세)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노후설계지원(47.6%)과 소득보장(45.4%)이 상위였고 고용지원은 24.0%였던 반면, 노년기에 진입한 일자리 참여자는 일자리 확대를 압도적 1순위로 꼽아 생애단계에 따라 정책 수요의 중심이 "준비"에서 "일자리"로 이동함을 보여줌

〈그림 3-37〉 향후 춘천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분야



〈표 3-18〉 향후 춘천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분야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일자리사업의 확대운영	374	58.7
노인 건강·돌봄서비스 확대	115	18.1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89	14.0
주거지원	8	1.3
노인전문교육	43	6.8
심리상담	8	1.3
기타	0	0.0
합계	**637**	**100.0**

2) 재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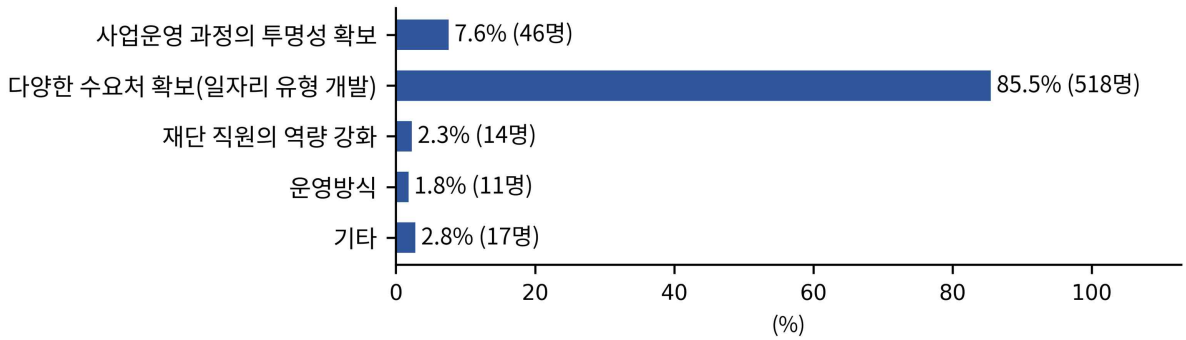
○ 재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다양한 수요처 확보(일자리 유형 개발)가 87.4%(518명)로 절대다수이며, 사업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7.8%, 기타 2.9%, 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2.4%, 운영방식 1.9% 순임

○ 운영 투명성·직원 역량 등 재단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는 매우 낮은 반면, 참여자의 경력·특기에 맞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큼

○ 운영방식 주관식에서는 희망 사업단 복수 지원 허용, 선정인원 증원, 수요처 업무 매뉴얼 사전 안내, 행정 간소화, 상호 의견교환 활성화, 자격증 분야별 배치 등이 제안됨

〈그림 3-38〉 재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소

[BASE: 응답자, n=593명, 단위: %]



〈표 3-19〉 재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소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사업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46	7.6
다양한 수요처 확보(일자리 유형 개발)	518	85.5
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14	2.3
운영방식	11	1.8
기타	17	2.8
합계	**606**	**100.0**

3)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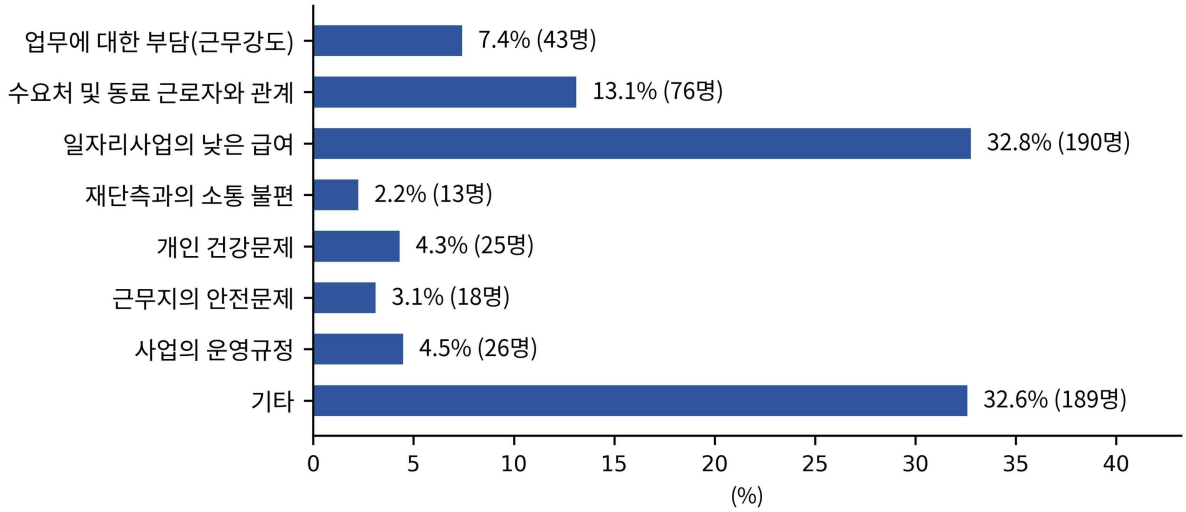
○ 현재 참여 시 불편한 점은 일자리사업의 낮은 급여가 33.7%(190명)로 가장 많고, 기타 33.6%(189명), 수요처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13.5%(76명), 업무 부담(근무강도) 7.6%(43명), 사업의 운영규정 4.6%, 개인 건강문제 4.4%, 근무지 안전문제 3.2%, 재단측과의 소통 불편 2.3% 순임

○ 기타 응답 189명 중 약 120명은 "없음·불편 없음·만족" 등으로 실제 불편이 없다는 의미로 응답하여, 이를 감안하면 유효응답자의 약 5명 중 1명(21.3%)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급여 외 실질적 애로는 수요처와의 거리·교통비·대중교통 부재, 근무공간 냉난방 등 환경 문제, 12/31 계약 종료에 따른 근무 연속성, 근무시간(3시간→4시간) 확대 요구, 개인 전문성을 활용한 수요처 배치 등으로 나타남

〈그림 3-39〉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시 불편한 점

[BASE: 응답자, n=563명, 단위: %]



〈표 3-20〉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시 불편한 점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업무에 대한 부담(근무강도)	43	7.4
수요처 및 동료 근로자와 관계	76	13.1
일자리사업의 낮은 급여	190	32.8
재단측과의 소통 불편	13	2.2
개인 건강문제	25	4.3
근무지의 안전문제	18	3.1
사업의 운영규정	26	4.5
기타	189	32.6
합계	**580**	**100.0**

4)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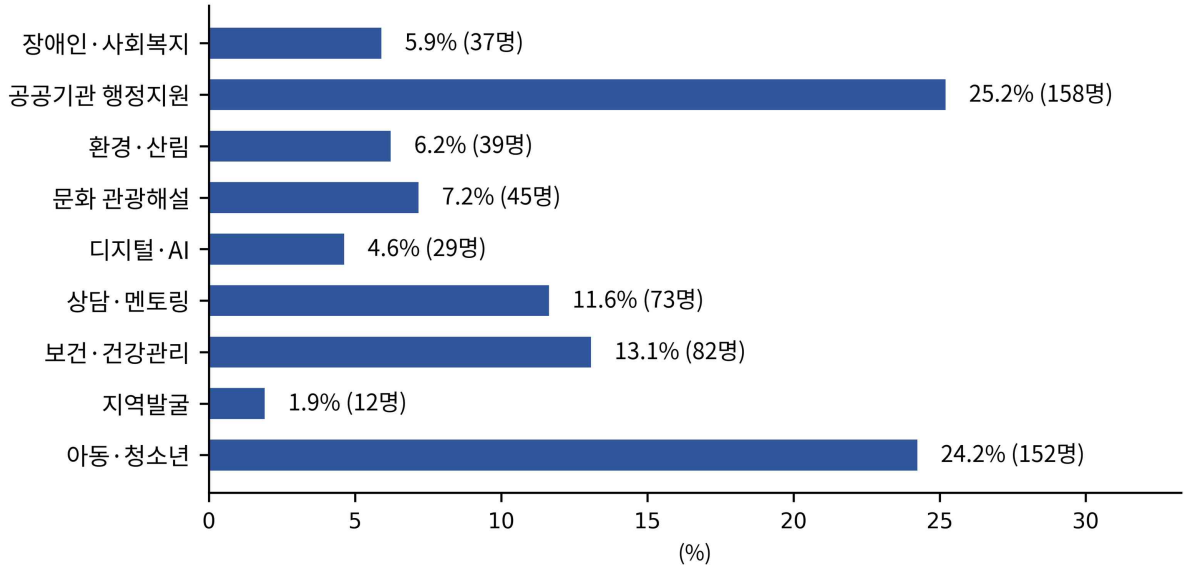
○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은 공공기관 행정지원 25.2%(158명), 아동·청소년 24.2%(152명)가 양대 축을 이루며, 보건·건강관리 13.1%(82명), 상담·멘토링 11.6%(73명), 문화 관광해설 7.2%, 환경·산림 6.2%, 장애인·사회복지 5.9%, 디지털·AI 4.6%, 지역발굴 1.9% 순임(복수응답 포함)

○ 행정지원·아동청소년·상담멘토링 등 사무·교육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선호가 61.0%로, 참여자의 전직 경력(사무직·교육분야 51.7%)과 정확히 맞물려 "경력 연계형 일자리" 확대의 근거가 됨

○ 환경·산림 등 단순 노무형 선호는 6.2%에 그쳐, 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직무 기대 수준이 공익활동형과 뚜렷이 구분됨

〈그림 3-40〉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BASE: 응답자, n=593명, 단위: %]



〈표 3-21〉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인·사회복지	37	5.9
공공기관 행정지원	158	25.2
환경·산림	39	6.2
문화 관광해설	45	7.2
디지털·AI	29	4.6
상담·멘토링	73	11.6
보건·건강관리	82	13.1
지역발굴	12	1.9
아동·청소년	152	24.2
합계	**6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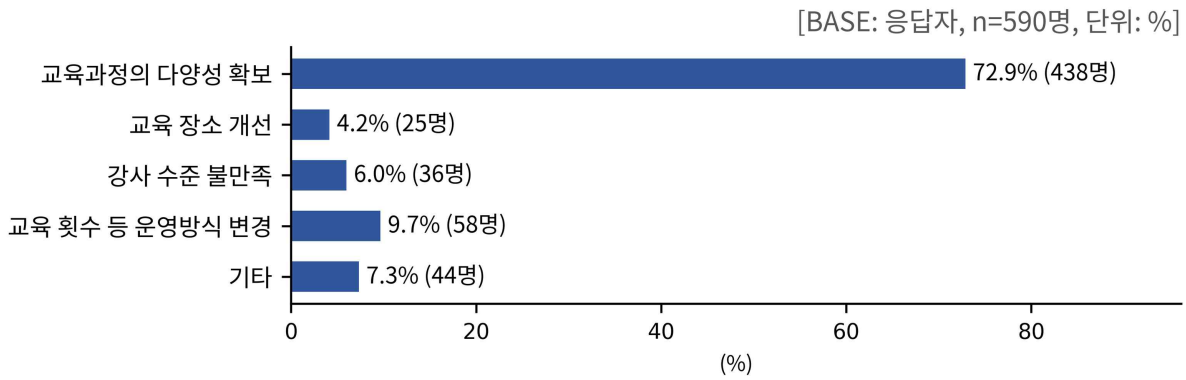
5) 재단 정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부분

○ 재단 정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은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가 72.9%(438명)로 압도적이고, 교육 횟수 등 운영방식 변경 9.7%(58명), 기타 7.3%, 강사 수준 불만족 6.0%, 교육 장소 개선 4.2% 순임

○ 운영방식 주관식에서는 교육 횟수 축소(격월·분기 1회·연 2~3회 등)와 월 1회 유지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1회 교육인원 100명 이내 소규모화, 오전·오후 선택제, 40분 강의·20분 휴식 방식, 인문학·경제·AI·스마트폰·레크리에이션 콘텐츠 추가 등이 제안됨

○ 장소·강사 등 하드웨어보다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요구가 커, 참여자 학력 수준에 걸맞은 교육 콘텐츠 다변화가 핵심 과제임

〈그림 3-41〉 재단 정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부분



〈표 3-22〉 재단 정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부분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438	72.9
교육 장소 개선	25	4.2
강사 수준 불만족	36	6.0
교육 횟수 등 운영방식 변경	58	9.7
기타	44	7.3
합계	**601**	**100.0**

6) 소양교육 과정에서 듣고 싶은 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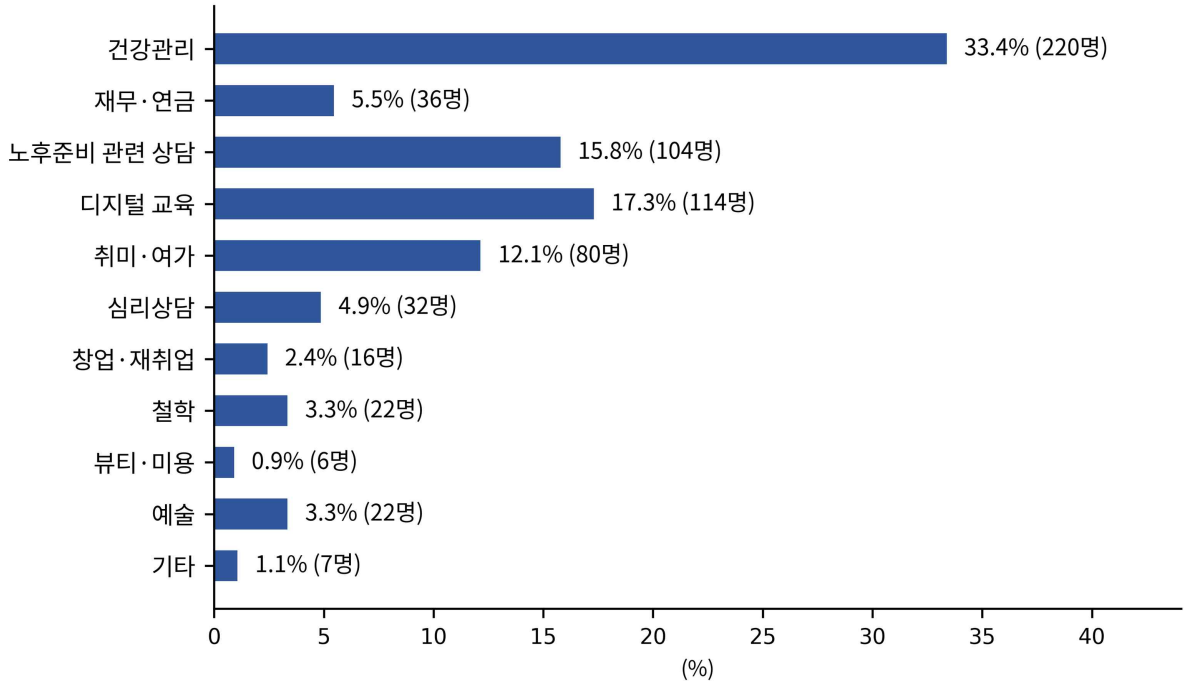
○ 소양교육 과정에서 듣고 싶은 분야는 건강관리 33.4%(220명), 디지털 교육 17.3%(114명), 노후준비 관련 상담 15.8%(104명), 취미·여가 12.1%(80명)이며, 재무·연금 5.5%, 심리상담 4.9%, 철학·예술 각 3.3%, 창업·재취업 2.4% 순임(복수응답 포함)

○ 건강관리가 1순위인 점은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85.4%)이, 노후설계 상담·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도 "건강관리"(76.3점)가 꼽힌 결과와 일치하며, 디지털 교육 수요(17.3%)는 참여자의 높은 학력과 홈페이지 이용률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함

○ 노후준비 상담(15.8%)과 재무·연금(5.5%)을 합하면 21.3%로, 재단 노후준비지원센터 기능과 일자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수요가 확인됨

〈그림 3-42〉 소양교육 과정에서 듣고 싶은 교육 분야

[BASE: 응답자, n=597명, 단위: %]



〈표 3-23〉 소양교육 과정에서 듣고 싶은 교육 분야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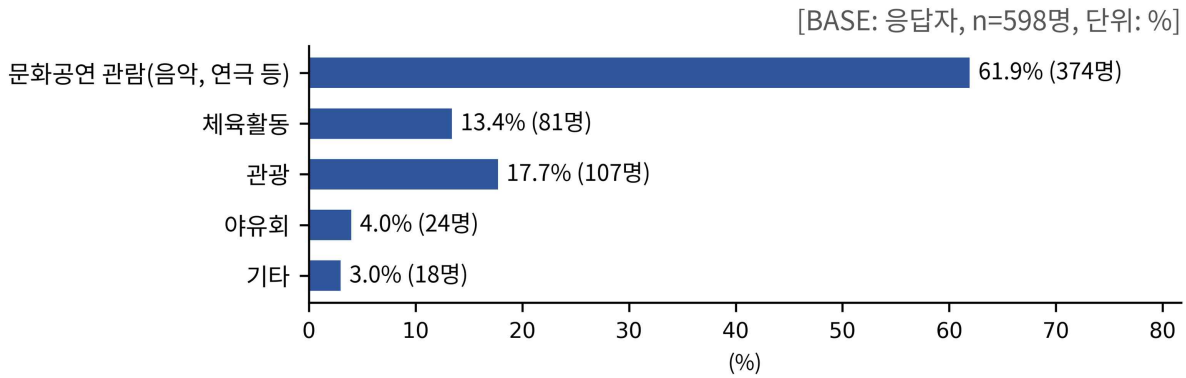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관리	220	33.4
재무·연금	36	5.5
노후준비 관련 상담	104	15.8
디지털 교육	114	17.3
취미·여가	80	12.1
심리상담	32	4.9
창업·재취업	16	2.4
철학	22	3.3
뷰티·미용	6	0.9
예술	22	3.3
기타	7	1.1
합계	**659**	**100.0**

7) 가장 선호하는 노인일자리 문화활동

○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은 문화공연 관람(음악, 연극 등)이 61.9%(374명)로 가장 높고, 관광 17.7%(107명), 체육활동 13.4%(81명), 야유회 4.0%, 기타 3.0% 순임

○ 기타 응답으로 영화관람, 예술·예능 교육 프로그램, 유명 강사 초청 강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간담회 등이 제시되었으며, "재단에서 문화활동을 경험하지 못함"이라는 응답도 있어 신규 참여자 대상 문화활동 안내가 필요함

〈그림 3-43〉 가장 선호하는 노인일자리 문화활동



〈표 3-24〉 가장 선호하는 노인일자리 문화활동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공연 관람(음악, 연극 등)	374	61.9
체육활동	81	13.4
관광	107	17.7
야유회	24	4.0
기타	18	3.0
합계	**604**	**100.0**

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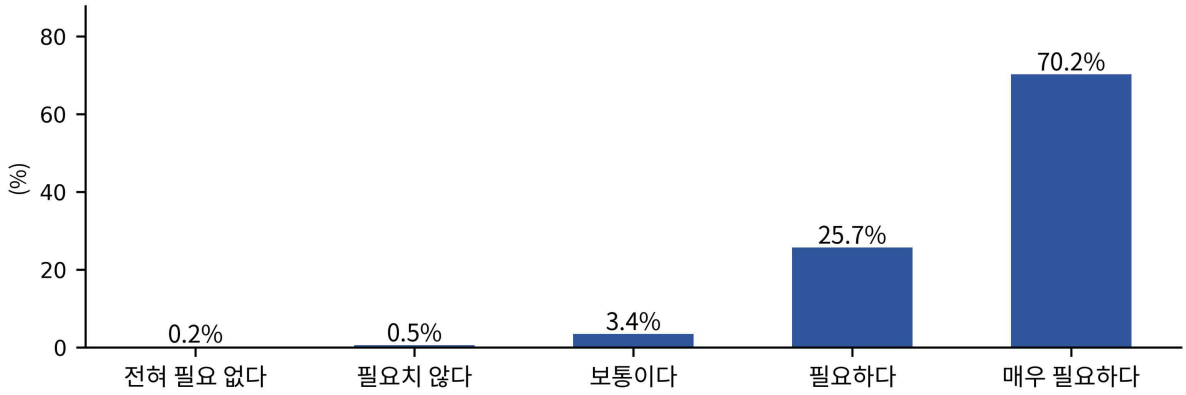
1) 사전 노후준비 필요성

○ 사전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70.2%(410명), 필요하다 25.7%(150명)로 긍정 응답이 95.9%에 달하며, 평균 4.65점으로 매우 높음

○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만 45~64세 춘천시민의 노후설계 상담·교육·정보제공 필요 정도가 건강관리(76.3점), 일자리(65.0점) 등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3-44〉 사전 노후준비 필요성

[BASE: 응답자, n=584명, 단위: %]



〈표 3-25〉 사전 노후준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	0.2
필요치 않다	3	0.5
보통이다	20	3.4
필요하다	150	25.7
매우 필요하다	410	70.2
합계	**5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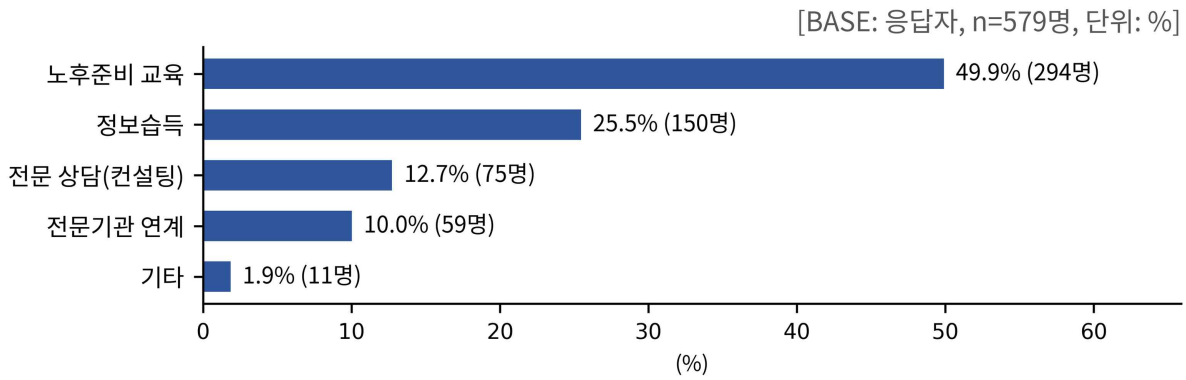
2)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점

○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노후준비 교육 50.8%(294명), 정보습득 25.9%(150명), 전문 상담(컨설팅) 13.0%(75명), 전문기관 연계 10.2%(59명) 순임

○ 교육과 정보습득 등 자기주도적 준비 수단에 대한 수요가 76.7%로, 재단 정기교육·소양교육 과정에 노후준비 교육을 정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응답에서는 건강관리, 경제력(경제적 문제) 준비, 자격증 취득이 언급됨

〈그림 3-45〉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점



〈표 3-26〉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점

(단위: 명, %) ※ 복수응답 포함,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노후준비 교육	294	49.9
정보습득	150	25.5
전문 상담(컨설팅)	75	12.7
전문기관 연계	59	10.0
기타	11	1.9
합계	**589**	**100.0**

3) 개인적 노후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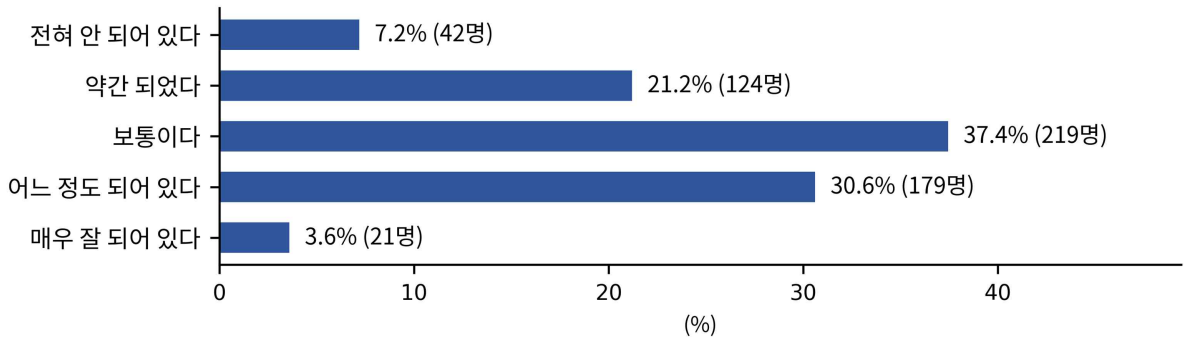
○ 개인적 노후준비 정도는 보통이다 37.4%(219명), 어느 정도 되어 있다 30.6%(179명), 약간 되었다 21.2%(124명), 전혀 안 되어 있다 7.2%(42명), 매우 잘 되어 있다 3.6%(21명) 순으로 평균 3.02점임

○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34.2%)과 미흡하다는 응답(28.4%)이 비슷하여,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4.65점)과 실제 준비 수준(3.02점) 사이에 1.63점의 큰 격차가 존재함

○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만 45~64세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가 100점 만점에 52.6~54.8점에 그쳤고, 2021년 50대 이후 종합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9.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춘천시민의 "인식-실천 격차"는 중장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고 있음

〈그림 3-46〉 개인적 노후준비 정도

[BASE: 응답자, n=585명, 단위: %]



〈표 3-27〉 개인적 노후준비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안 되어 있다	42	7.2
약간 되었다	124	21.2
보통이다	219	37.4
어느 정도 되어 있다	179	30.6
매우 잘 되어 있다	21	3.6
합계	**5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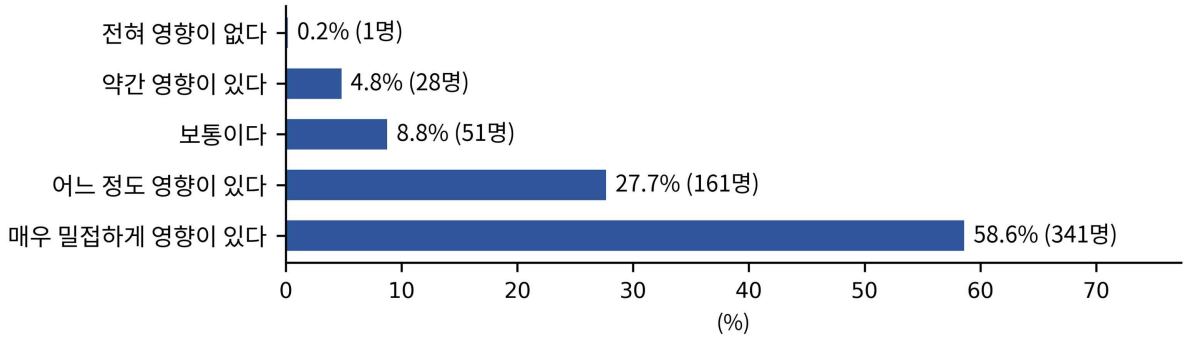
4) 사전 노후준비가 노년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전 노후준비가 노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58.6%(341명),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27.7%(161명)로 긍정 응답이 86.3%, 평균 4.40점임

○ 노년기 삶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사전 준비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들의 경험은 중장년층 대상 노후준비 교육의 설득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음

〈그림 3-47〉 사전 노후준비가 노년생활에 미치는 영향

[BASE: 응답자, n=582명, 단위: %]



〈표 3-28〉 사전 노후준비가 노년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영향이 없다	1	0.2
약간 영향이 있다	28	4.8
보통이다	51	8.8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161	27.7
매우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341	58.6
합계	**5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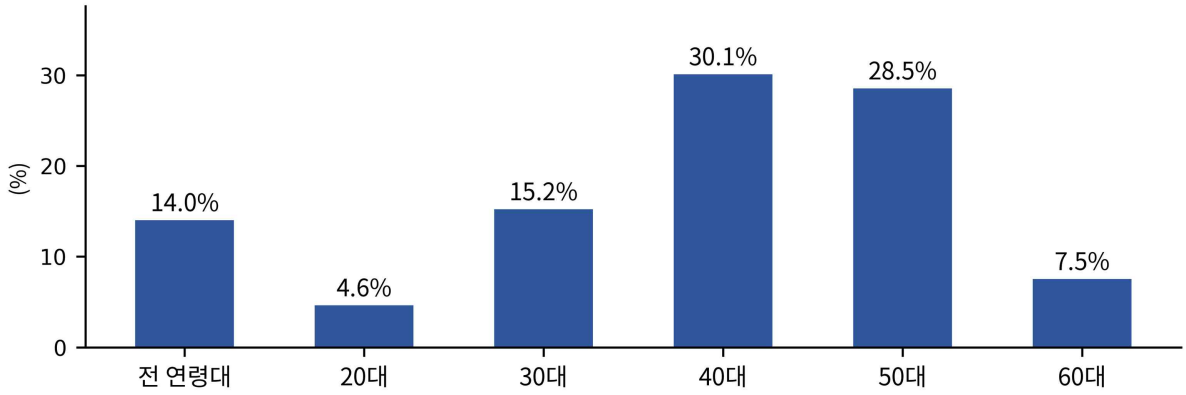
5)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

○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는 40대 30.1%(176명), 50대 28.5%(167명)로 40~50대가 58.6%를 차지하며, 30대 15.2%, 전 연령대 14.0%, 60대 7.5%, 20대 4.6% 순임

○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는 노후설계 상담·교육의 적정 시기로 45~49세(33.4%), 50~54세(24.2%)가, 2021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노후준비 교육 시기로 54세 이하(31.4%)가 가장 많이 제시되어 세 조사 모두 40대 후반~50대 초반을 준비 적기로 보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 40대 이하 조기·상시 준비 의견이 63.9%로 더 많은 것은 노년기 진입 후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다"는 경험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그림 3-48〉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

[BASE: 응답자, n=585명, 단위: %]



〈표 3-29〉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 연령대	82	14.0
20대	27	4.6
30대	89	15.2
40대	176	30.1
50대	167	28.5
60대	44	7.5
합계	**585**	**100.0**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종합 결론

1) 재단 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특징: "고학력·활동적·경력형 신노년층"

○ 참여자는 만 65~74세 전기노인이 72.0%를 차지하고 건강상태 긍정 응답이 60.6%로 활동성이 높으며, 대학 이상 학력 53.5%, 사무직·교육분야·전문직·군인 경력 60.3%로 전형적인 공익활동형 참여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인적 구성을 보임

○ 기초연금 비수급자 54.6%, 자가 거주 85.0%, 자가용 통근 36.6% 등 경제·생활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집단이지만,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도 40.8%로 경제적 필요형과 사회참여형 참여자가 공존함

○ 노인일자리 근무경력 2년 이하가 67.6%로 사업 급성장에 따른 신규 유입이 많고, 참여 경로의 51.8%가 지인 소개여서 현재 참여자의 만족이 곧 향후 모집의 기반이 됨

2) 사업 성과: 만족·신뢰·지속참여 의지 모두 최상위 수준

○ 인식조사 20개 문항 전체 평균 4.37점, 긍정응답률 91.7%로, 종합 만족도 4.50점, 재참여 희망 4.62점, 운영 신뢰 4.48점, 소속감 4.43점 등 재단 사업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음

○ 건강(4.37점)·활력(4.43점) 등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 촉진(4.38점)·인식 개선(4.37점)·인력부족 해소(4.30점) 등 사회적 효과가 모두 높게 평가되어, 역량활용사업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인력 보완에 동시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임이 확인됨

○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투명성 7.8%, 직원 역량 2.4%)가 매우 낮고 재단측과의 소통 불편 응답도 2.3%에 불과해, 운영 체계에 대한 참여자 신뢰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3) 개선 과제: 경제적 효과와 직무 일치도, 그리고 수요처 다양화

○ 가계 경제 도움(4.10점, 긍정 80.6%)은 20개 문항 중 최하위이고 불편사항 1순위도 낮은 급여(33.7%)로, 참여 동기 1순위(경제적 도움 54.3%)에 비해 급여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

○ 직무-역량 일치도(4.10점)는 부정 응답과 편차가 가장 커 고학력·전문경력자와 배치 직무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며, 참여자의 87.4%가 다양한 수요처 확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고 희망 일자리도 행정지원(25.2%)·아동청소년(24.2%)·보건건강(13.1%)·상담멘토링(11.6%) 등 경력 연계형에 집중됨

○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다양성(72.9%)이 압도적 요구이며 건강관리·디지털·노후준비 상담 등 실용 콘텐츠 수요가 높고, 소규모 분반·횟수 조정 등 운영방식 개선 의견이 병존함

○ 주관식에서는 수요처와의 거리·교통비·대중교통 부재, 근무공간 냉난방, 12월 말 계약 종료에 따른 근무 연속성, 근무시간 확대(3→4시간) 등 현장 애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됨

4) 노후준비: 높은 인식, 낮은 준비, 교육 중심 수요

○ 노후준비 필요성 4.65점, 노년생활 영향 4.40점으로 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 준비 정도는 3.02점으로 1.63점의 격차가 있으며, 이는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만 45~64세)와 2021년 50대 이후 종합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춘천시민의 "인식-실천 격차"가 노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필요 요소는 노후준비 교육(50.8%)·정보습득(25.9%), 적정 시기는 40~50대(58.6%)로, 재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지원 기능과 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결합하고 노년기 참여자의 경험을 중장년층 교육 콘텐츠로 환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제언

① 경력 연계형 수요처 확대 및 역량 기반 직무 매칭 체계 구축

○ 참여 신청 단계에서 전직 경력·자격증·특기·희망 직무를 DB화하고, 수요처 직무 요건과 매칭하는 "역량-직무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무 일치도(4.10점) 제고

○ 희망 일자리 상위 유형인 공공기관 행정지원, 아동·청소년(학습지도·아이돌봄), 보건·건강관리, 상담·멘토링 분야의 수요처를 우선 발굴하고, 시청·읍면동·교육청·복지기관 등 공공 수요처와의 협약을 확대

○ 주관식 제안을 반영하여 모집 시 희망 사업단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수요처 업무 매뉴얼을 배치 전 사전 안내하여 직무 적응 지원

② 급여·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 경제적 효과(4.10점)와 급여 불만(33.7%)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확대(3→4시간) 사업단 확대, 자격증 보유·전문 직무에 대한 차등 활동비, 원거리 수요처 교통비 지원 등 실질 소득 보완 방안 검토

○ 12월 말 일괄 계약 종료에 따른 근무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연속 근무가 가능한 사업 설계와 재참여 절차 간소화 추진

○ 소득 수준·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 보완형과 사회공헌형 사업단을 구분 운영하여 참여 동기에 맞는 배치 실시

③ 권역별 거주지 인근 수요처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 버스·도보 통근자가 60.7%이고 읍·면 거주자가 18.3%인 점을 고려하여, 읍·면·동 권역별로 대중교통 또는 도보 접근이 가능한 수요처를 우선 배치하는 원칙을 정립

○ 근무공간 냉난방, 지하주차장 인접 사무실 등 주관식에서 제기된 환경 문제에 대해 수요처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안전상태 만족도(4.43점)를 지속 관리

④ 참여자 학력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 다변화 및 운영방식 개편

○ 교육과정 다양성 요구(72.9%)에 부응하여 건강관리, 디지털·AI·스마트폰 활용, 노후준비·재무·연금 상담, 인문학·경제 교양 등 선택형 소양교육 트랙을 신설

○ 교육 횟수는 축소 의견과 유지 의견이 병존하므로 필수 직무교육은 횟수를 줄이고 선택형 교육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⑤ 일자리-노후준비 통합 지원 체계 확립

○ 노후준비 교육 수요(50.8%)를 반영하여 재단 노후준비 지원 기능과 일자리 소양교육을 연계한 "일자리 참여자 노후준비 진단·상담" 프로그램을 정규화

○ 준비 정도가 낮은 참여자(미흡 28.4%)를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관계 4대 영역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노년기 참여자의 경험담을 중장년층 노후준비 교육 콘텐츠로 활용

⑥ 문화활동·관계 형성 프로그램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선호도가 높은 문화공연 관람(61.9%)과 관광(17.7%) 중심으로 사업단별 소규모 문화활동을 확대하고, 신규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안내를 강화

○ 새로운 만남 기회(4.10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근무형 수요처 참여자를 위한 사업단 간 교류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운영

○ 참여자의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인에게 신뢰받지 못함", "자존감 문제" 등 인식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춘천시 발전 기여 체감도(4.09점)를 제고

⑦ 참여자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데이터 기반 사업 관리

○ 본 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고 사업단별·수요처별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자료 관리 체계를 갖추어 만족도·직무 일치도의 변화를 추적

○ 지인 소개(51.8%) 중심의 모집 구조를 감안하여 재단 홈페이지·춘천시보 등 공식 채널 홍보를 병행하고, 참여자 만족도를 모집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관리

3. 제언 요약

〈표 4-1〉 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의 연계

조사 결과(근거)	정책 제언	기대 효과
직무 일치도 4.10점(최하위권), 수요처 다양화 요구 87.4%, 행정지원·아동청소년 희망 49.4%	역량-직무 매칭 시스템, 경력 연계형 공공 수요처 확대, 복수 지원 허용	고학력·전문경력 활용도 제고, 직무 만족도 향상
경제 도움 4.10점(최하위), 낮은 급여 불편 33.7%, 근무시간 확대·연속성 요구	근무시간 확대 사업단, 전문직무 차등 활동비, 교통비 지원, 연속 근무 설계	소득 보완 효과 강화, 참여 지속성 제고
버스·도보 통근 60.7%, 읍·면 거주 18.3%, 거리·교통 애로 다수	권역별 거주지 인근 배치 원칙, 수요처 환경 점검	출퇴근 부담 완화, 농촌지역 참여 확대
교육과정 다양성 요구 72.9%, 건강·디지털·노후준비 교육 수요, 소규모·선택제 제안	선택형 소양교육 트랙, 소규모 분반·오전오후 선택제	교육 만족도 및 참여율 향상
노후준비 필요 4.65점 vs 준비 3.02점, 노후준비 교육 수요 50.8%	일자리-노후준비 통합 진단·상담 프로그램	노후준비 실천율 제고, 재단 기능 간 시너지
문화공연 선호 61.9%, 새로운 만남 4.10점, 인식·자존감 애로	사업단별 문화활동, 교류 프로그램, 성과 홍보	사회적 관계 확대, 자긍심 및 사회적 인식 개선

Ⅴ. 부록

1. 주관식(기타) 응답 정리

I-6 참여경로 기타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 동부디아코니아
○ 아이들 돌봄 교육(YMCA)
○ 시청
○ 시니어박람회(봄내체육관)

II-7 참여 전 직종 기타

○ 청소·어린이집
○ 아동개인 케어
○ 간호사
○ 텔레마케터(10년)
○ 요양보호사(2명)
○ 유치원 조리사
○ 안경사
○ 청소
○ 경비원
○ 법무사무소
○ 보험설계사

II-9 교통수단 기타

○ 택시
○ 전철

II-10 참여 이유 기타

○ 출근하는 보람
○ 일상 유지
○ 지문(항목) 모두 해당(2명)

IV-2 개선요소 - 운영방식 의견

○ 소속된 일자리에 불만자는 제외
○ 선정인원 증원 필요
○ 상호 의견교환의 활성화(의견교환 부족)
○ 근무지가 자택에서 너무 멀다·교통비 지원 필요
○ 모집 인원 선발 시 희망 사업단 복수 지원으로 선택 폭 확대
○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간소화

○ 다각적인 일
○ 수요처의 업무 매뉴얼 사전 확보 고지

Ⅳ-2 개선요소 - 기타

○ 힘들다
○ 참여자 선정: 낮은 소득자 우선으로
○ 급여 상향
○ 근무 시간 현장과 탄력 운영(무더위 때 오후/오전)
○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자격증 분야로 배분하면 좋겠습니다
○ 온동네 초등학교
○ 없음(4명)

Ⅳ-3 참여 시 불편한 점 기타

○ 없음·불편 없음·만족(약 120명)
○ 더 많은 수요처 필요
○ 사무실이 지하주차장 옆이라 건강상 문제 우려
○ 사회인식(일반인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
○ 홍보 관련 안내 필요
○ 근무·업무의 연속성(2명)
○ 수요처가 멀어요·수요처와 거리·출근거리·교통 불편(4명)
○ 교통비 지원
○ 버스노선
○ 대중교통수단 없음
○ 출퇴근 차가 없고 거리가 멂
○ 무거운 것은 들지 않았으면 함
○ 목표 달성 건수
○ 사업 참여자의 개인 봉사정신 필요
○ 사무실의 너무 낮은 온도로 건강에 악영향
○ 근무 공간 냉방시설 필요
○ 일자리의 질이 낮음(청소 위주의 불편함)
○ 자존감 문제
○ 오지택배 연료비 부족
○ 12/31까지 근로계약·근무기간 연장
○ 수요처에서 노인일자리 공급을 원치 않음
○ 3시간→4시간
○ 개인의 전문성·특기 등을 활용한 수요처 배치

Ⅳ-5 정기교육 운영방식 변경 의견

○ 매월 1회·월 1회·한달 1번(3명)
○ 격월 교육·2달에 한번(3명)
○ 3개월에 1회·분기 1회(2명)
○ 연 2~3회·1년에 5번 정도(2명)
○ 횟수가 너무 많음·횟수 줄이기(4명)
○ 교육기간 단축
○ 1회 교육인원 100명 이내로 소규모화
○ 오전·오후 선택 자유 부여
○ 경제 교육 포함
○ 레크리에이션 추가
○ 인문학 강의
○ 교육시간 40분·휴식 20분 3시간 진행
○ AI나 스마트폰 사용 교육
○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질(내용) 향상
○ 없음·만족(약 20명)

Ⅳ-6 희망 소양교육 기타

○ 문화생활
○ AI 관련 교육
○ 다양성
○ 직무관련 사례

Ⅳ-7 선호 문화활동 기타

○ 영화관람
○ 건강·여가활동
○ 예능 교육 프로그램
○ 간담회
○ 취미활동 확대
○ 유명 강사 초청 강연
○ 다양한 예술부분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재단에서 문화활동을 경험하지 못함

Ⅴ-2 노후준비 필요 요소 기타

○ 건강상담 관리·건강 관리(2명)
○ 경제력 준비·경제적 문제·경제(4명)
○ 자격증 취득
○ 건강관리 및 경제문제

※ "미응답", "무응답" 등 무의미 응답은 제외하였으며, 동일·유사 응답은 통합하여 건수를 병기함

2. 설문 문항 구성

〈부록표 1〉 영역별 설문 문항 및 보기

번호	문항	보기
I-1	성별	남성 / 여성
I-2	거주지역	읍 / 면 / 동
I-3	연령분포	만 60~64세 / 만 65~69세 / 만 70~74세 / 만 75~79세 / 만 80세 이상
I-4	기초연금 수급여부	받고 있다 / 받고 있지 않다
I-5	노인일자리 총 근무경력(타기관 포함)	1년 미만 / 1~2년 / 3~4년 / 4~5년 / 5년 이상
I-6	재단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지인 소개 / 재단 홈페이지 / 춘천시보(봄내소식지) / 언론·홍보물 / 인터넷·SNS / 기타
II-1	건강상태	매우 나쁨 / 나쁨 / 보통 / 좋음 / 매우 좋음
II-2	주거형태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 / 무상임대
II-3	가구원 수(실제 거주 인원)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II-4	가족형태	독거 / 부부 / 미혼자녀 / 기혼자녀 및 배우자 / 손자녀 및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기타
II-5	최종학력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4년제 미만) / 대학교(4년제 이상)
II-6	경제상황	매우 불안정 / 다소 불안정 / 보통 / 다소 안정 / 매우 안정
II-7	참여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종	사무직(공공기관 포함) / 교육분야 / 군인 / 자영업 / 전문직 /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 가정주부 / 무직 / 서비스업 / 기타
II-8	월평균 가계소득(부부합산)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 600만원 이상
II-9	일자리 참여 시 교통수단	도보 / 버스 / 자가용 / 자전거 / 오토바이 / 기타
II-10	노인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이유	경제적 도움 / 자아실현 / 건강 유지 / 사회참여(봉사) / 기타
III-1	노인일자리가 개인의 건강(정신)관리에 도움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2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가 생활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3	노인일자리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4	나의 활동이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5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6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7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8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의 노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9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0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겠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1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는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2	일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3	현재 직무가 나의 역량과 경험에 대체로 일치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4	춘천미래동행재단 근로자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5	춘천미래동행재단은 나의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6	재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대체로 신뢰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7	앞으로도 재단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8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하겠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19	내가 근무하는 곳의 안전상태는 양호하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I-20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만족한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V-1	향후 춘천시 노인복지정책 최우선 분야	일자리사업의 확대운영 / 노인 건강·돌봄서비스 확대 /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 주거지원 / 노인전문교육 / 심리상담 / 기타
IV-2	재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소	사업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 다양한 수요처 확보(일자리 유형 개발) / 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 운영방식 / 기타
IV-3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시 불편한 점	업무에 대한 부담(근무강도) / 수요처 및 동료 근로자와 관계 / 일자리사업의 낮은 급여 / 재단측과의 소통 불편 / 개인 건강문제 / 근무지의 안전문제 / 사업의 운영규정 / 기타

IV-4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장애인·사회복지 / 공공기관 행정지원 / 환경·산림 / 문화 관광해설 / 디지털·AI / 상담·멘토링 / 보건·건강관리 / 지역발굴 / 아동·청소년
IV-5	재단 정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부분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 교육 장소 개선 / 강사 수준 불만족 / 교육 횟수 등 운영방식 변경 / 기타
IV-6	소양교육 과정에서 듣고 싶은 교육 분야	건강관리 / 재무·연금 / 노후준비 관련 상담 / 디지털 교육 / 취미·여가 / 심리상담 / 창업·재취업 / 철학 / 뷰티·미용 / 예술 / 기타
IV-7	가장 선호하는 노인일자리 문화활동	문화공연 관람(음악, 연극 등) / 체육활동 / 관광 / 야유회 / 기타
V-1	사전 노후준비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 필요치 않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V-2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점	노후준비 교육 / 정보습득 / 전문 상담(컨설팅) / 전문기관 연계 / 기타
V-3	개인적 노후준비 정도	전혀 안 되어 있다 / 약간 되었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 되어 있다 / 매우 잘 되어 있다
V-4	사전 노후준비가 노년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혀 영향이 없다 / 약간 영향이 있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 매우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V-5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	전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3. 참고 자료

○ 춘천미래동행재단(2026),「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재)춘천지혜의숲·글로벌리서치(2024),「춘천시민의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 춘천지혜의숲(2021),「춘천시 50대 이후 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춘천시 고령사회정책과, 연도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2021~2025)

○ 통계청 KOSIS, 간이생명표(2025); 춘천시 통계, 주민등록 인구현황(2021~2025)

○「노인복지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2026),「2026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춘천시 통계

○ 국토교통부(2025),「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6.4.),「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 '13~'25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백찬규(2019),『젊은 노인의 탄생』, 원앤원북스

○ 통계청(2026),「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춘천미래동행재단(2026.6.26.),「정책개발참고보고서 NO.03」(한국노총「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분석)

○ 보건복지부(2026), 기초연금 수급 현황(2025년 말 기준)

2026 춘천미래동행재단 정책연구

춘천미래동행재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일자리 참여자 620명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

발 행 일	2026년 11월 4일
발 행 인	신용준
편 집 인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TF팀
발 행 처	춘천미래동행재단
전 화	033) 252-5070
팩 스	033) 244-7080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32, 해찬빌딩 3층
홈페이지	https://www.cc5070.or.kr/

Chuncheon Future Companion Foundation
춘천미래동행재단